

2015.08.12.

CNI세미나 2015-81

역사적 상상력의 보고 - 백 제 -



제4차 충남미래연구포럼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제4차 충남미래연구포럼



개 요

- 주 제 : 역사적 상상력의 보고; 백제
- 일 시 : 2015. 8. 12.(수), 15:00~
- 장 소 : 공주 한옥마을 백제방
- 발 제 자 : 김 영 덕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이 도 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원표(충남연구원)
- 주요내용 : 백제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백제 역사의 문화콘텐츠化를 위한 제언



진 행 순 서

시 간		소요 (분)	세부 행사내용	비 고
부터	까지			
15:00	15:10	10'	▶ 인 사 말 씀	· 미래전략연구단장
15:10	15:40	30'	▶ 주 제 발 표 1 5세기 일본에 있던 백제 다무로	· 김영덕 명예교수
15:40	16:10	30'	▶ 주 제 발 표 2 백제인의 발길이 닿았던 곳	· 이도학 교수
16:10	16:30	20'	▶ 휴 식	
16:30	17:50	8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지정토론 포함)	· 다 함 께
17:50	18:00	10'	▶ 정리 및 폐회 (석식)	· 미래전략연구단장

발 제 1.

5세기 일본에 있던 백제 다루로

김 영 덕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다가히시 다무로에서 태어난 비사 왕국

2015.6

김영덕

서강대학명예교수

서기 369년에 백제는 가야 일곱 나라를 평정하고 이들 나라마다 다무로^{曇魯}를 차린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다가히시^{多加披次}였다. 다무로^{曇魯}란 중국의 군현과 같다고 중국 랑서는 적고 있다. 현재 경남 창녕에는 4세기 중반 이전에는 변진 열두 가야 나라의 하나인 불사^{不斯}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를 무찌른 백제는 이곳 비사/히시와 이웃한 다가 나라를 아울러 다무로를 차렸던 것이다. 다가와 비사/히시는 10km라는 가까운 사이이며 이 두 나라를 369년에 차지한 백제는 이 둘을 아울러 다가비시/다가히시 라는 다무로를 차린 것으로 우리는 본다.

이 사실을 이나리아마 칼글은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첫 글장에서 나라 이름을 이두로 풀이하면서 이곳이 369년 이후 한 동안 백제 땅이었음을 살펴본다. 1)

둘째 글장에서는 400년대 이후 독립 왕국으로 거듭나서 비사 왕국이 생기는 역사를 살펴본다.

셋째 글장에서는 이 왕국이 남긴 고고학 유품과 유적을 살펴본다.

넷째로 결론에서 그 역사 뜻을 알아본다.

I. 다가히시 다무로의 유래

이나리아마 칼 글에는 다가피차^{多加披次}라는 다무로 이름이 나온다. 이 이름을 중고음을 통해 이두로 읽어보기로 한다.

중고음 따온 소리 적힌 말

多 : ta → ta → 다

加 : ka → ka → 가

披 : phi → pi/hi → 비/히

次 : tshi → si → 시

따라서 이 땅이름은 다가-비시/다가-히시로 볼 수 있다. 히시는 백제투 이두로 읽은 땅 이름이다. 이 땅 이름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고장을 찾고자 우선 문헌에 나오는 비슷한 땅 이름을 알아보기로 한다. 삼국사기(권34)에는 전기 신라때에는 비자화^{比自火} 비사벌^{比斯}

1) Kim Yongduk, the Introduction on the inaviyama Tumulua Sword Reuieited ; Lord Ko Served Baekje King Gaero, The Review of Korean Studied, Vol 12, no 4, 2009, pp 235-257

伐, 후기 신라때에는 화왕^{火王}, 고려때에는 창녕으로 나온다. 창녕비에는 비사벌^{比斯伐}로 나오
고 여지 승람(27권)에는 비자화, 비사화^{比自火}로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비화^{非火}로 적혀있다.
이들 땅 이름의 한자를 이두로 읽어보자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 말

比 :	pi	비/히	비/히
斯 :	sie	sa/si	사/시
火 :	hua	부루/바라	
伐 :	biwat	bat	바라

이에 따라 비사벌이나 비자벌은 비시바라/비지부루가 될 수도 있고 백제 이두로는 히시
하라/히지후루가 될 수도 있다. 바라나 부루는 별판이나 고을을 뜻하므로 이 땅이름 비사벌
에서 비사나 히시는 소리 옮김이 된다. 화는 뜻옮김으로 보고 불의 옛말 ‘부루’로 읽어본다.
곧 위 칼글의 비시/히시는 문헌에 나오는 창녕의 옛 땅 이름과 통한다. 히시는 5세기 백제
말 소리로, 비사는 8세기 신라 말소리에서 유추되는 이두 표기 였던 것이다.

이제 다가를 알아보자. 문헌에는 다가를 탁으로 줄여서 중국 량서에는 탁^卓으로, 일본 서기
에는 도꾸^啄라는 한자 하나로 표기한 듯한데, 이곳은 어디일까? 일본 서기에는 같은 고장을
도꾸고돈^{啄己呑} 라고도 적고 있다. 돈은 다니 곧 골짜기라는 뜻이 있으므로 도꾸와 같은 고장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김태식²⁾에 따르면 이 도꾸고돈은 현재 경남 영산을 가리킴을 밝히
고 있다. 곧 탁, 도꾸는 위 칼글에 다가로 이두표기된 영산에 있던 옛 가야나라 이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창녕과 영산은 10km밖에 안 떨어진 고을들이었으므로 이 두 곳에 있던 나라를 평
정한 뒤 백제는 하나로 아울러 다가히시라는 새로운 다무로를 차리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일본 서기 진구 49년(369년) 대목에 적힌 바 도꾸와 히시호를 아우르는 이름이 바로 다가-
히시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칼글에 따르면 이 곳을 다스리던 고 확고의 조상이 돌아간 다음 대 조상이 현재 하동인
다사에서 확고로 있을 때인 서기 396년에 고구려의 백제 침공을 피하여 이 집안은 일본 도
쿄 지방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두 세대를 지난 고 확고 세대에 “고” 라는 땅에 백제의 다무
로를 다스리는 확고로 임명됐던 것이다. 이 이나리아마 칼 글은 참으로 놀라운 백제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 동안 백제는 창녕-영산에도 다무로를 두고 다스리고 있던 것이다.

II. 다무로에서 왕국으로

삼국지 위서의 한전에 따르면 삼한에 있던 여러 고을 나라들에는 소도가 있었고 천군이
나라의 제사와 정치를 도맡았던 것으로 적혀있다. 몽고에서는 하늘을 텡그리라며 하늘을 모
시는 이도 텡그리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천군의 중고을은 tien-kiuen이며 텡그리가 텡그
니가 되고 이 말을 천군이라고 이두 표기 했다고 짐작한다.

이런 작은 가야 나라들은 4세기 당시에는 인구가 몇 천 밖에 안되고 가장 컸던 금관가야

2) 김태식, 『가야 연맹사』, 일조각 1993, 196쪽

의 인구도 2만이 채 안됐던 것으로 삼국지는 적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는 낙랑이 물러간 뒤에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4세기 중반에는 보기병으로 가야 나라들을 휩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창녕에 있던 불사不斯나라와 영산에 있던 나라 다가多加를 차지한 백제는 다가히시多加披次다무로를 이곳에 차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는 고고학 증거가 이 나리아마 칼 글이고 일본서기, 진구 49년 대목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백제 관습에 따라서 이곳을 다스리던 확고獲居가 죽자 그 후대는 다사기 곧 하동의 확고로 옮겨갔고 고구려가 백제를 친 서기 396년에는 도교 지방으로 망명했고 그 후손이 471년 이전 어느 해 교다行田지방의 다무로에 확고로 다시 등용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고 확고의 조상인 다가히시 확고가 창녕에서 죽은 뒤에는 진眞씨 귀족이 이곳에 새 확고로 임명됐다가 400년대 이후로 이 다무로는 왕국으로 거듭나며 그 임금으로 눌러 살다가 멸망한 서기 555년까지 이 집안은 이곳을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창녕 화왕산 중턱의 용지龍池라는 못에서 나온 목간이다³⁾. 창녕에는 화산이던 화왕산이 있고 그 곳 화왕 산성에 있는 세 연못 가운데 용지라는 못을 발굴해 보니 큰 칼, 다리미, 향합 등 쇠붙이와 토기 등 외에 목간 네 개에 나왔다. 그 목간 가운데 사람처럼 머리와 몸통을 시늉한 큰 것이 나왔다. 이 목간을 보면

앞면 : 口口古口仗口剖六用九歲 眞族 龍王開祭

뒷면 : 眞族<인물상>

이 적혀 있었다.

그 풀이는

앞면 : 口(口)古口(에 사는) 仗口는 여섯 곳을(못으로) 찢었습니다. 29세로서 진족입니다. 용왕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뒷면 : 진족인 인물상.

이 목간을 살핀 김창석은 29세된 진족 여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못에 던져 넣은 부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인 모습에 여섯 군데에 못 구멍이 있어, 역신을 내몰고 용왕이 병을 고쳐 달라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못에 던져 넣은 부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족이라는 말이다. 곧 이 제사를 올리는 집안이 진씨라는 성씨를 갖는 집안일 것이라는 것이다. 진 씨라면 백제 여덟 큰 성씨이며, 여씨 왕족의 외척이었던 것이다.

곧 백제 귀족 집안이 이 곳에 살고 있었고 제사 올린 시기는 관독한 간지로 871년이던 것이다. 백제는 이 곳을 369년에 차지하고 이 나리아마 칼 글을 지은 고 확고의 조상 다가히시 확고가 이 곳을 다스렸던 바 그가 떠난 뒤 후임으로 온 확고 집안이 진眞씨였고 그 후손이 9세기까지 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진 족이라는 집안이 이 용왕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용지 못에서는 그 뒤에도 용왕 신앙에 얽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창녕 조씨의 시조 설화다.

화왕 산성 안에 있는 득성지지得姓之地라는 비석의 글을 적는다 :

『신라 26대 진평왕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인 예향은 어려서부터 복병腹柄이 있어 온갖 명약을 다 써도 좀처럼 복병은 낫질 않았다.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예향에게 어떤 사

3) 김창석, 「창녕 화왕 산성 연지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김시환, 구민정, 이성호, 「창녕 화왕 산성에 연지」, 창녕군 경남 문화재 연구소, 2009, 박성천, 김시환, 「창녕 화왕 산성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4, 2009,

람이 말하기를 창녕 화왕산(火旺山) 용지(龍池)라는 못은 신탁(神驗)이 영특하여 만일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에 좋은 날로 택일을 한 후, 예향은 기도하고 용지에 목욕을 하였더니, 갑자기 운무(雲霧)가 자욱하여 갈 바를 몰랐다. 조금 있으니 운무가 개이고 예향이 못에서 솟구쳐 나왔고, 그 후 병이 쾌유(快癒)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고 아들을 낳았다. 현자(賢者)가 현몽(現夢)하기를, “너가 이 아이의 부친을 알겠는가? 그 이름은 용자(龍子) 옥결(玉王朱)이니, 아이를 잘 기르면 크게는 공후(公侯)가 될 것이요, 작게는 경상(卿相)이 될 것이며, 자손만대에 번성을 누릴 것이니라.” 하였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겨드랑이에는 조자(曹字)와 비슷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이광옥(李光玉)이 진평왕에게 고하자, 왕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아기에게 ‘조(曹)’라 사성(賜姓)하고 이름을 ‘계룡(繼龍)’이라 하였다. 계룡(繼龍)은 커가면서 매우 총명하였으므로 진평왕이 사랑하여 여러 가지 관직을 내렸으며, 신라 진평왕의 사위가 되어, 창성부마(昌城駙馬)에 봉하니 곧 창녕(昌寧) 조씨(曹氏)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이 창녕 조씨 집안에서는 아직도 용지에서 음력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창녕 조씨 집안이 목간의 진족이었지 않았나 짐작을 해 본다.

창녕에서 대대로 유력한 집안이 던 진족이었기에 신라로부터 신 씨라는 성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진족이 창녕에 살고 있었음은 목간 글이 밝혀주며 비사/히시 왕국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백제 다무로가 창녕에 있었다는 또 한 가지 증거는 계성리에 있는 백제 마을 유적⁴⁾이다. 비사/히시 나라가 5, 6세기에 걸쳐 백제 사람이 다스리던 고장임을 뒷받침하는 듯 계성리에서 백제 마을 유적이 발견됐다. 계성리는 창녕과 영산 사이에 있는 고장이다. 큰 골과 봉화골이라는 좁다란 골짜기에 5세기 전후에 지은 마을인 스물 다섯 채 집터가 발굴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집은 영락없는 백제식 집이며 네 기둥을 네 모퉁이에 세운 것들이란다. 그 안에 있는 부뚜막에는 거기에 걸쳐 물을 데울 긴 항아리며, 시루가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질그릇 이었다. 그 옆에는 물을 담을 큰 항아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작은 항아리, 높은 잔, 바리, 주발, 손잡이 잔 등 여러 가지 백제 질 그릇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 곳에서 나온 덜 그릇은 가야 지방 것들 이었다고 한다. 질그릇을 굽던 가마터도 한 군데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생긴 5세기 전후라면 다가히시 다무로에서 히시/비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고구려군이 서기 396년에 충청도까지 치고 내려왔고 서기 400년에는 보기군 5만이 부산까지 쳐내려온 시기이다. 이 때 생긴 백제 피란민이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서 백제 다무로가 있던 창녕 계성리에 와서 자리 잡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 유적에서는 대왜의 질 그릇도 나왔으며, 왜와 문물 교류가 잦았던 이곳 왕실과 이 마을 사이에 교섭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하여간에 계성리의 백제 마을 유적은 이 고장에 백제인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III. 고고학 고찰

삼국지 위서 한전에는 삼한 시대에는 나라에 성벽을 쌓은 곳이 없던 것으로 적고 있다.

4) 조경화, 『이방인의 꿈』, 창녕 박물관, 2013

이곳 창녕과 영산에는 어느 시기에 지은 것인지는 몰라도 산성이 여럿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창녕에 있는 화왕산 꼭대기에 지은 화왕 산성이 있다. 화왕산은 휴화산으로 샘이 아홉 군데, 못이 세 군데 있거니와 산성이 분화구에 지어져 있다. 이 산성의 석축 기법은 북규슈에 있는 가야 이주민의 논에서 관개 수로를 지을 때 돌을 쌓는 방법과 비슷하다고도 하며, 오랜 전통이라고 한다. 이 밖에 목마(牧馬)산성과 구진 산성이 있고 이 목마산성 안에서는 기마부대용 말을 길렀었다고도 한다.

이 목마 산성은 목마산 능선을 따라 화왕산성에 닿으면서 장기전에 유효했을 것이라 한다. 백제 전통과 같이 목마 산성과 가까운 교동 일대에는 왕도와 살림터가 있었고 그 가까운 데에는 무덤 터를 마련했던 바 그 무덤 때 가운데 교동 무덤 때, 계성 무덤 때가 있다. 이 무덤 들에서는 눈부신 유물이 많이 나왔다. 이제 가운데 백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알아본다.

(1) 용무늬 고리 자루칼⁵⁾

고리 자루칼은 백제 대왕이 다무로 확고에 하사한 것이 많은데, 권위를 주는 상징물이다.

교동 10호 고분에서는 쇠칼, 쇠촉, 금팔찌, 토기 등 많은 유품이 나온 바, 그 가운데 쌍용 고리 자루 칼도 하나 나왔다. 그 길이는 9.8cm, 자루 길이 16.8cm, 고리 지름 5.6cm 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동경 국립 박물관에는 가야에서 나온 용무늬 고리 자루칼에 은상감된⁶⁾ 것이 밝혀졌다.

이 칼글에는 열여섯 자가 은상감됐고, 다음과 같다.

不畏也口令此刀主富貴

高遷財物多也

그 서체는 육조풍으로 이나리야마 칼글의 서체와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나리야마 칼글은 백제 사람이 지은 것이며, 이로 미뤄 이 가야 칼도 백제 것임이 짐작된다.

(2) 고소가리 冠

다라 가야나 에다후나이리라 다무로의 무덤에서는 금동 고소가리가 나와 이 곳이 백제 다무로 임이 다짐된다.

교동 Ⅱ조 3호 무덤에서는 쇠 고소가리가⁷⁾ 나왔으며 높이 14.6cm, 너비 8.5cm이라 흔히 보는 금동 고소가리와 달리 쇠로 만들었으므로 아마도 하사 받은 금동 고소가리를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곧 이곳에도 백제가 하사한 금동 고소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곳 비사/히시 왕국은 후기에는 신라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지 출자 모양한 왕관도 출토하며, 아예 독특한 날개꼴 왕관도 나오기도 하며, 독립 왕국의 모습이 엿보인다.

(3) 금동 산발⁸⁾ 노

5) 김세호, 『비화 가야사 연구』, 비화 가야 연구들, 1997, 51p

6) 東野治之, 「7世紀以前の金石文」, 『列島の古代史』 6, 岩波書店, 2007

7) 조경화, 『소장 유물 도록』, 창녕 박물관, 2007, 115p

8) 김혁준 조경화, 『비사벌의 지배자 : 그 기억을 더듬다』, 국립김해박물관, 창녕로, 우리 문화재 연구원, 2014, 71p

장례용으로 만든 금동 신발이 교동 II군 10호 무덤에서 나왔다. 다만 부스러진 파편으로 나왔으며凸자 무늬가 새겨진 것으로 봐서 신라 풍일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동경 박물관에는 전 창녕 금동 신발이 있는데 역시凸자 무늬로 꾸민 모양으로 신라 풍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금동 신발은 각각 만든 솜씨가 다르다.

화살통 쇠붙이, 화살촉, 갑옷 외에도 청동 합, 청동 다리미, 청동 초두 등 갖가지 쇠붙이가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농기구로는⁹⁾ 삽날, 쇠스랑, 살포 등도 나왔고, 집게, 도끼, 끌, 덩이쇠도 나왔다. 마구로는¹⁰⁾ 재갈, 말띠 꾸미개, 발걸이, 말띠 드리개, 길 마, 말 방울 외에 기꽃이 등이 나오고 있다. 기꽃이는 공산성에서도 나오고, 여미리 단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으며, 백제 다무로 문화의 유품이 아닌가 묻고 싶다.

(6) 토기¹¹⁾

5세기 초에 있었다는 계성리 백제 마을 유적은 이곳 창녕과 영산에 이나리아마 칼글의 다가히시 다무로가 있었다는 물증인 것으로 우리는 본다. 계성리에서 나오는 귀떼註口 토기는 합천 풍계리 유적, 거창 대야리 유적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이들 고장은 역시 백제 다무로가 있었던 곳임에 주목한다. 또한 세모꼴 구멍이 난 그릇받침도 백제 토기이며 4세기 백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질그릇이다.

이곳에서는 녹각으로 꾸민 쇠칼이 나왔는데 하지끼 질그릇과 더불어 대왜 토산품이며, 왜 나라에 있던 다무로와 이곳 다무로 사이에 있었던 활발한 교역의 결과일 것이다.

한 편, 창녕 양식 토기인 굽다리 접시, 뚜껑 긴 목 항아리 등은 창원 일대 외에 부산, 김해, 양산, 경주, 대구, 월성, 고령, 진주, 의창, 영일, 해남지역 에서도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옛 다무로 사이 뿐 아니라 신라 지역과도 활발한 교역이 있었던 것이다.

IV. 맺는 글

창녕에는 백제가 다스리던 다가히시 다무로가 서기 369년에서 400년대 까지 있었고 그 뒤 서기 550년 까지 이곳에 비사/히시 왕국이 있었음을 문헌과 고고학으로 살펴봤다. 우선 이 다무로의 존재는 이나리아마 칼글이 밝히는 바 주인공 고 확고의 조상 한 분의 이름이 다가히시 확고였던 것이다. 다가히시는 다가 영산과 히시 곧 창녕을 아올은 백제 땅 이름이던 것이다. 일본 서기 진구 49년 대목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더욱 놀라운 고고학 사실은 창녕과 영산 사이에 있는 계성리에서 400년대 백제 마을 유적이 발굴된 것이다.

창녕은 다무로였기에 옛 일본에 있던 백제 다무로와도 교역이 활발했음을 5세기 이후 지었다는 교동 등 왕릉 유적과 유품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554년 관산성 전투에 이긴 신라는 그 이듬해 서기 555년에 창녕에 있던 비사/히시 왕국을 차지하고 만 것이다.

9) 김혁준, 조경화, 「상동, 111p」

10) 김혁준, 조경화, 상동, 117p

11) 김혁준, 조경화, 상동, 96p

백제 다무로와 다섯 왜왕

2014. 1

서강대학 명예 교수

김영덕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을 보면, 이나리야마 칼글¹ 이야말로 일본 왕실이 5세기에 도쿄 지방과 규슈 지방까지 호족을 보내면서 온 일본을 다스리던 명백한 고고학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논문²에서 밝힌 바 이 통설에서 판독한 칼 글에서 두 한자 “巨”거 와 “互”호를 각각 “臣”신 과 “呂”데로 잘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5세기 한자 음을 8세기 만요 가 나 음으로 읽음으로써 이 칼글에 적힌 지명을 제대로 못 읽은 것이다. 또한 대왕 이름도 개로 대왕 대신 유라꾸 천황으로 잘못 읽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은 우리 결론은 이 칼글이야말로 백제가 5세기에 도쿄 지방에 다무로(櫛魯)를 차리고 다스렸다는 고고학 증거라는 것이다. 곧 이 칼글은 백제 후왕 “고”확고가 471년에 도쿄 지방을 다스리면서 개로 대왕을 섬겼고, 그 선조들이 4세기 후반에 고리가리(현 함창), 다가(현 영산), 비시(현 창녕), 다사기(현 하동)에서 확고 곧 후왕으로 있었다는 집안 족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확고가 섬긴 대왕은 개로 이고, 이 개로 대왕의 이름이 규슈 에다후나야마 무덤에서 나온 칼에 새긴 글³에도 나오며, 따라서 이곳 역시 백제 다무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이 에다후나야마 무덤에서 나온 글 새긴 칼을 지은이는 개로의 상표문(458년)에 적힌 왕족 여기(余紀)라는 우현왕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며, 이 곳 역시 백제의 다무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 개로대왕의 아우 곤지왕은 좌현왕으로 백제 상표문(458년)에 적혀 있으므로 이 분이 있던 오사카 만 동부의 옛 가와찌(河内) 지방 역시 백제의 다무로 일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세 다무로를 1장, 2장, 3장에서 각각 다루면서 아울러 가와찌 다무로를 다스리며 백제 후왕이었던 왜왕들을 알아본다. 끝으로 결론에서 이 역사가 지닌 뜻을 적기로 한다.

¹ 埼玉縣教育委員會, 『稻荷山古墳出土鐵劍金銘概報』, 埼玉縣政情報資料室, 1988.

² 김영덕, 「옛 일본의 두 자루 칼에 새긴 글」, 『박물관 기요』, 단국대학 석주선 기념 박물관, 1999.

³ 江田船山古墳編輯委員會, 『江田船山古墳』, 熊本縣玉名郡菊水町, 1989.

I. 고(乎) 다무로

이 칼은 1968년에 일본 교다(行田)시에서 발굴 됐고, 열 해 뒤에 보존 처리 중에 그 칼날에 금 상감된 한자 115자가 새겨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바로 일본 국보에 지정되면서 많은 학자가 그 칼 글을 연구했다. 이 칼글을 보는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⁴을 알아 본 다음에 이두로 본 우리 풀이를 적기로 한다.

(가) 통설

여기서 이 칼들은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臣上祖名意富比埵
其兒多加利足尼其兒名_ㄴ已加利獲居
其 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_ㄴ比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臣世世爲杖刀人
首奉事來至今獲加多支鹵大王寺在
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也.

이제 통설대로 이 칼글의 풀이를 적어 본다. “신묘년 (서기 471년) 7월에 적는다. “워”(wo)와께 신(臣)의 조상 이름은 “오호” 히꼬, 그 아이는 “다가리” 스꾸네, 그 아이 으름은 “데요가리” 와께, 그 아이 으름은 “다까하시” 와께, 그 아이 이름은 “다사기” 와께, 그 아이 이름은 하데히, 그 아이 이름은 “가사하요”, 그 아이 이름은 “워” 와께 신(臣)이다. 세세로 장도인(杖刀人)의 머리가 되어 섬기며 이제에 이른다. “와까다게루” 대왕의 마실(寺)이 “시끼” 에 있을 때, 나는 천하를 도와 다스리고, 온번 달군 이로운 칼을 만들고, 내 섬긴 근원을 적는 바이다.”

이 글에서 여덟 세대의 이름을 통설에 따른 고바야시(小林敏男)⁵ 씨의 글에서 알아본다. 우선 워 이름에서 히꼬, 스꾸네, 와께라는 칭호 내지 존칭을 가진 네 세대는 중앙 호족에서 볼 수 있는 계보란다. 가령 가쓰라기(葛城)씨족의 조상들 곧 소쓰 히꼬, 아시다 스꾸네, 아리 오미 등과 같은 계보와 닮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히꼬”는 영웅 인물, “스꾸네”는 주로 중앙 호족의 조상, “와께”는 지방 호족에 많이 있고, 분봉된 왕자에 쓰이고 있는 호칭이라고 적고

⁴ 金井塚良一, 『福荷山古墳の鐵劍を見直す』, 學生社, 2001.

⁵ 小林敏男, 「五世紀の前方后円墳の動向と稻荷山古墳」, 『앞책4』, pp.94-108.

있다. 다음 6대와 7대에는 아마도 정치 변동으로 존칭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호칭 내지 존칭 앞에는 사람 이름이 적힌 것으로 보고 있다. 8세기 노래 모음인 만요슈(萬葉集)에 나오는 한자 발음 따라 이름을 읽고 있다. 가령 호 획거(乎 獲居)는 “워” 와게로 읽은 것이다. 다른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데, 다가리와 데요가리 이름에서 ‘가리’라는 음절에 주목하면서 일본서기나 고문서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소바가리’, ‘이하가무쓰가리’ 등 왕실 친위대(親衛隊) 가운데 ‘가리’라는 음절이 나오므로, 이 음절이 있는 ‘다가리’나 ‘데요가리’도 중앙 왕실에서 친위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왕 이름 획가다지로(獲加多支鹵)는 유랴꾸(雄略) 천황의 이름 “와까다께”(稚武)에 갖다붙이면서 야마도(大和, 大倭) 왕권의 친위 장군 집안 가운데 관동 지방까지 보내진 호족의 족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랴꾸 천황의 이름에 “루”를 더해서 대왕 이름에 맞추고 있는 것은 억지인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규슈에서 나온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칼 글에도 같은 대왕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그곳 까지도 야마도(大和) 왕실에서 호족을 보내 5세기에 다스리고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왕 이름도 무리하게 읽고 있을 뿐아니라 여덟 세대의 호칭을 벼슬 이름 대신에 사람 이름으로 읽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랴꾸 이름이 “와까다께”임에도 ‘루’를 덧붙여, 이 대왕 이름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나) 이두로 본 풀이

이제 이 칼글을 우리 나름대로 이두로 살펴보기로 한다. 논문⁶ “이나리야마 고분 출토 칼에 새긴 글을 다시 보다”를 참고하면서 우선 두 글자 “巨”거 와 “互”호⁷를 바로 잡은 이 칼글은 다음과 같다.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巨上祖名意富比埵
其兒多加利足尼其兒名互已加利獲居
其 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互比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巨世世爲杖刀人
首奉事來至今獲加多支鹵大王寺在

⁶ Kim Yongduk, 「The inscription on the Inariyama Tumulus Sword Revisited: Lord Ko served Baekje King Gaero」,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Dec, 2009.

⁷ 손환일, 「이나리야마(福荷山) 고분 출토 철검과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출토 철검의 세계」, 『문화사(文化史)지』, 27권, 2007.

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也.

이 칼글에 나오는 낱말을 5세기 때 한자 소리와 이두로 적힌 옛 지명⁸을 참작해 알아본다. 이 칼 글을 적은 서기 471년 당시에 쓰였을 백제 말을 당시 배운 한자 소리⁹로 이두 표기했다고 보고, 이 칼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이두 표기를 살펴본다.

(1) 乎獲居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乎	yo	Ko Ho	고
獲	ywak	Hwak Kwak	확
居	Kiao	Ki ko	기 고

곧 乎獲居는 “고 확고”로 본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와께”는 확고 내지 확기에서 “ㅎ”이 빠지고, “ㄱ”나 “ㅣ”가 “ㄱ”로 바뀌면서 일본 말 “와께”가 됐다고 짐작된다. 일본 말에서는 나눈다는 말은 “와께루”라고 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별(別)자로 “와께”를 적은 것으로 본다. 이 칼이 발굴된 무덤이 있는 고장 이름은 현재 교다(行田)(Gyota)이다. 이 행(行)자는 “고”라고도 일본 말로 부르기도 하며, 다(田)는 땅을 뜻하므로 이 고장 이름은 원래 “고”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고” 땅을 다스리는 고을님이 “고 확고”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意富比埵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意	Iə	O	오
富	Piao	Pu	후
比	Pi	Bi/Hi	비/히
埵	kiwe	ki	기/고

오후히고가 바뀌어서 오후히꼬가 됐다고 봄. 오후는 크다는 백제 말에서 현재 일본말에 크다는 뜻의 오후가 됐다고 본다.

(3) 多加利足尼

⁸ 류열(柳烈), 『삼국시기의 이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 1983.

⁹ 呂叔湘,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3.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加	ka	ka	가
利	li	li	리
足	tsiwok	Sok	소구
尼	ni	ni	니

곧 이 말은 다가리 소구니이다. 현재 일본말로로는 다까리 수꾸네(宿禰)로 읽힌다. 다가리는 우리말로 현재 대가리로 바뀌었으나 원래 머리카락 우두머리의 뜻으로 썼을 것임. 투루코 옛 말에는 Dekin이라는 말로 마을 우두머리라는 뜻이란다.

(4) 互已加利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互	yo	ko	고
已	jiə	i	이

곧 이 말은 고이가리가 되겠으나 류렬, 418쪽에서 扶余를 bio-ia → po-I → po-ri로 읽고 있고, 류렬, 532쪽에서 多已를 ta-ia → ta-ri로 읽은 보기에 따라, '고이가리'는 '고리가리'가 될 수 있겠다. 류렬에 따르면, 古寧伽倻은 ko-neng-ka-la → ko-ne-ka-ra → ko-ra-ka-ra로서 '고라가라'의 이두 표기란다. 가리는 가라의 형태 변종이고 이곳은 현재 함창(咸昌)이다.

(5) 多加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加	ka	ka	가

이 말은 '다가'로 읽히며, 중국 사서에는 탁(卓), 일본서기에는 도꾸(喙)로 적힌 나라 이름이며, 현 영산(靈山)이다.

(6) 披次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披	phie	Pi/hi	비/히
次	tshi	Tsi/si	치/시

이 말은 '비시' 또는 '히시'이며, 비사(比斯), 비자벌 또는 히시바라(比子伐, 比自伐)에 비정되며 현재 창녕(昌寧)에 비정된다. 백제가 창녕을 다무로로 다스릴 때는 히시로 불렀을 것이

다.

(7) 多沙鬼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沙	sa	sa	사
鬼	kiwəi	ki	기

이 말은 다사기로 읽히며, '기'는 성을 뜻하는 백제 말로 보면, 다사는 곧 현 하동(河東)으로 비정된다.

(8) 半互比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半	puan	Pan/han	반/한
互	yo	Ko/ho	고/호
比	pi	bi/hi	비/히

이 말은 반고비 또는 한고히로 읽히나 이두 표기에서 '반(半)'은 바나 → 바라로 흔히 표시되므로 이 땅이름은 바라고비 또는 백제 이두로 읽으면 하라고히가 될 수 있겠다. 류렬, 415쪽에 보면, 땅 이름 반나(半奈)를 pan-nai → para-na 곧 바라나로 읽고 있다.

우리말 바위의 옛말은 바히이며, 이 본에 따라 하라고히의 첫 마디에서 ㅎ이 빠지고, 고히가 현재 일본말 가와라고 보면, 이 땅 이름은 아라가와(荒川)가 될 수 있으며, 동경만에 흐르는 강이 된다. 이제 고히互比를 가와川라고 보는 근거를 더 알아보기로 한다. 강화江華 땅의 옛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다. 그런데 이 땅 이름을 고구려는 혈구穴口로 부르고 신라는 해구海口라고 했다. 그렇다면 백제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백제 이두로는 이 땅 이름을 가히고치라고 불렀을 것으로 짐작되며 가히가 강화의 강江에 해당하면 현재 일본말 가와川가 됐다고 본다. 곧 가히는 가와川의 옛말이 되겠고 고히互比는 가히甲比와 통하는 말인 것이다.

(9) 加差披余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加	Ka	ka	가
差	Tsa	Sa	사
披	Phie	Pi/hi	비/히
余	jio	io	여/요

류렬, 418쪽을 보면 부여(扶餘)는 bio-jao → bo-I → bo-ri 로 읽고 있다. 이 본에 따라 “가차피여加差比余”는 “가사히리”로 읽을 수 있다. 교다(行田) 이웃한 곳에 가사하라(笠原)라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이름으로 비정된다.

(10) 獲加多支鹵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多	ta	Ta	다
支	tsie, ki	Ki	기
鹵	læu	ro	로

곧 이 말은 “확가 다 기로”가 된다. 흥노 대왕을 뎡그리고 도 선우라하며, 뎡그리고는 하늘아들, 도는 크신, 선우는 대왕을 뜻한다. 이 본에 따라 “다”도 크다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류렬에 따르면, 다(多)는 가나 곧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한편 개로(蓋鹵)는 kai-lo → ki-ro의 소리웁김으로 보면, 이 이름은 개로 임금을 높혀 적은 “확가 다 개로”가 된다. “다多”는 우리 옛말로 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11) 斯鬼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斯	sie	Si/sa	시/사
鬼	kiwæi	ki	기

이 말은 ‘시기’가 된다. 삼국사기에는 진사왕때 사성(蛇城)에서 송산(崇山)까지 뚝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蛇는 dzia → zia → zi/za로 보면, 사성(蛇城)을 ‘시기’의 이두 표기로 볼 수 있고, 위 말은 이 ‘사성蛇城’에 비정된다.

위 결과를 종합해서, 이 칼글을 나름대로 풀이해본다.

“신해년(471년)에 적은바 고 확고게/께¹⁰ 옛 조상 이름은 오호 히꼬, 그 아들은 다가리 소구니, 그 아들은 고리가리 확고, 그 아들은 다가 히시 확고, 그 아들은 다사기 확고, 그 아들은 하라고히, 그 아들은 가사 히리, 그 아들은 고 확고 게로 대대로 장수로서 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확가이신 크신 개로 대왕이 시기궁에서 일 보실 때 천하를 다스림을 도왔도다. 온번 달구어 만든 이 좋은 칼에 우리가 섬겨온 근원을 적는 바이다.”

¹⁰ 거(巨)는 그 중고음이 gio이고, “게”를 소리 웁긴 듯 하다.

이 칼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조상들의 호칭¹¹이 백제 관례대로 지명+벼슬로 적혀 있는 점이다. 가령 고 확고에서 확고는 차지한 땅 곧 다무로를 다스리는 벼슬 이름이며, 태수나 후왕을 뜻하는 백제 말인 것이다. 그리고 확고 앞에 이름은 다스리는 땅 곧 다무로의 지명인 것이다. “고(乎)”는 이 칼이 나온 고장의 이름 교다(行田)의 옛 지명을 뜻하는 것이다. 고리가리는 고녕가야(古寧伽倻, 현 함창)이며, 다가 히시에서 다가는 현재 영산(靈山)을, 히시는 현재 창녕(昌寧)을 각각 가리키며 다사기는 현재 하동(河東)을 가리킨다.¹² 그리고 하라고히는 현재 동경만에 흘러드는 아라가와(荒川)를, 가사히리는 현재 가사하라(笠原)라는 지명이라고 본다. 곧 고 확고의 조상들은 낙동강 연안의 가야 나라들에 있던 다무로에서 확고였었다. 이 집안은 4세기 말에 하동에서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아라가와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 세력을 키우다가 교다 지방에서 다시 고 확고로 그곳 다무로에 백제로부터 책봉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 확고가 섬긴 대왕 이름은 이 칼글에 확가 다 기로(獲加多支鹵)로 적혀 있다. 여기서 확가는 대왕을 기려서 붙이는 미칭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겐 전례가 있다. 삼국지 위서의 한전을 보면 목지국 임금 이름인 우호(優乎)에 유독 혹가(或加)라는 미칭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자 혹(或)의 중고음이 “확”인 것이다. 그 동안에 혹가(或加)를 학자마다 달리 읽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일본 역대 천황이름을 보면 9, 13, 20, 22, 23, 26 대등 여섯 명의 이름에 “와까”(稚)라는 말이 이름 첫머리에 붙어 있고, 백제 확가(或加)와 같이 임금 이름에 붙이는 미칭임을 알 수 있다. 이름 끝에 붙는 “와께”(別)와 대조된다. “와께”(別)는 곧 獲居라고 통설도 주장한다.

히미고 여왕시대에 규슈의 왜나라 벼슬 가운데 확기(獲支)라는 말이 있으며, 獲居와 통한다.

이렇게 볼 때 獲加와 或加의 중고음이 “확가”로 같고, 백제 전통을 따랐을

¹¹ 이 글에서는 분명히 지명+벼슬로만 적혀 있으며, 칼 글의 주인은 고 확고라는 벼슬아치이며 개인 이름은 아예 없다. 檐魯 곧 다무로는 중국의 군현과 같은 백제 고을이다. 耽羅는 耽牟羅라고도 적으며, 羅는 ‘라’를 耽은 ‘다모’를 나타내기 도 하고 이런 기법은 이두에서 흔하다. 이 관례에 따라 檐魯를 다무로의 이두 표기로 볼 수 있다.

¹² 대가야, 고령가야와 비화가야 등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12세기, 13세기 우리 문헌에 나오는 지명이며, 5세기의 칼 글에 나오는 지명은 이 보다 그 시기가 앞선 것이다. 곧 가라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어 가야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도구고돈(喙己吞)을 영산으로 김태식(『가야 연맹사』, 일조각, 1993, p.196)은 밝히고 있고 이곳은 도구(喙)와 통하며, 다가와 통한다.

야마도 임금 이름에 존칭으로 보이는 “와까”(稚, 加)가 있으므로 “확가”는 임금 이름 머리에 붙이는 존칭일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가령 9대 가이까 천황의 이름은 “와까 야마도”(雄日本)이고 22대 유랴꾸 천황의 이름은 “와까다께”(幼武)이다. “와까”는 젊다는 일본말 “와까이”를 어릴 치(稚)자나 어릴 유(幼)자의 뜻을 옮겨서 이두표기한 것이다. 한편 훈족(匈奴)의 대왕 이름 땡그리고도 선우에서 “도”는 위대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多를 이두에서는 “대”大 대신에 쓰기도 하며, 위대하다는 뜻으로 본다. 다가리에서 다는 머리를 뜻하는 옛말이기도 하다. 한편 개로(蓋鹵)에서 “개”는 복합 모음이며, 이두에서 개는 “가” 아니면, “기”를 적은 것으로 본다. 곧 이두 표기에서 개로는 “가로”아니면 “기로”를 옮겨 적은 것으로 볼 때 기로(支鹵)든 개로(蓋鹵)든 같은 이름인 것이다.

곧, 고 확고는 백제 개로 대왕을 섬기면서 일본의 도쿄 북쪽에 있는 교다라는 땅에 있던 “고” 다무로를 471년(신해년)에 다스리던 백제 후왕이었던 것이다.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어림잡아 보면 이 집안 조상들 가운데 다사기 확고 때 곧 고구려가 396년에 백제를 쳤을 무렵에 이 집안은 하동 곧 다사기 다무로를 떠나 왜 땅으로 망명한 백제 장수 집안이며, 그 족보가 이 칼글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도쿄 지방에 5세기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음이 이나리 야마 칼 글이라는 고고학 발굴로 뒷받침된 것이다. 또한 백제 사람이 적은 이 칼글은 백제 말 일 수 밖에 없으며, 백제식 이두로 적은 금석문인 것이다.

고고학에서 본 바

(i) 토우(土偶)¹³

관동 지방 두 곳에서 발굴된 인물 토우를 보면 그 옷차림이 백제풍이다. 머리에는 반쪽 고깔, 넓은 저고리 소매, 널찍한 바지, 코가 치솟은 신발, 이러한 모습은 바로 6세기의 양 직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옷차림을 빼 닮았다.

이런 인물 토우가 사이따마 고을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 두 개 나왔고, 멀리 지바 고을 야마꾸라 고분에서도 두 개가 나왔다. 사끼마끼 14호 고분에서는 네 마리 말 토우도 나왔는데 그 한 마리 말 등에는 꼬불한 기꼴이 대가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이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고 가야 고분에서도 실물이 나오고, 교다 시 쇼군야마 고분에서도 출토됐고, 백제 공산성에서도 나왔다. 백제의 이런 마갑 풍속이 관동 지방에도 있었다는 물증인 것이다.

이 고장에서는 씨름꾼 토우도 나왔는데 허리에는 방울이 달린 모습이다. 그런데 백제 외사리 절터 전돌에는 방울을 허리에 찬 신령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 허리에 방울을 찬 씨름꾼 풍습이 백제에서 전래됐음을 보이는 것이다.

¹³ 編輯, 『海を渡って来た文化』, 行田市博物館, 1991.

더구나 구리술(鍮) 모양한 토우도 나왔으며, 백제 기마 전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본다. 그렇듯이 이 고장 관동에는 유달리 6세기까지도 백제 유습이 많이 엿보이며, 고 확고 집안이 이곳에 세력을 오랫동안 떨쳤던 결과로 생긴 문화 유산이라고 우리는 본다.

(ii) 구리 거울

이나라야마 고분에서는 구름 무늬 짐승 테 거울(書文環狀乳神獸鏡)이 나왔는데 이 같은 거울이 군마 현 간노쓰까 고분, 지바 현 오다끼 고분, 미에 현 나미기리쓰까 고분, 후쿠오카 현 미야코군나이 고분, 미야자키 현 야마노부 고분 등지에서 나오고 있다. 구리 거울은 당시 신통력이 있다고 믿었던 신기(神器)여서, 백제와 고 담루를 잇는 교통 요로에 있는 이들 지방 사이에는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 사이에 있었을 정치 내지 문화 유대의 결과라고 본다.

(iii) 고리 자루 칼¹⁴

백제 유품 가운데 고리자루 칼은 특히 백제 왕실의 권위의 상징인듯 그 담루들과 그 에 딸린 세력가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고 확고의 조상들 가운데 세 분이 한반도 내 담루의 확고 곧, 백제 후왕이었음에 주목한다. 이들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 가운데, 다가 히시(披次)와 다사기는 일본 서기 진구 69년 대목의 일곱 가야 평정 기사에 나오는 지명과 일치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가야 지방을 평정한 나라는 백제였음이 이 칼글의 발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기사를 바로 새기면, 백제는 서기 369년 즈음해서, 탁순(독산, 벽진 가야), 오호가라(대가야), 다라(옥전), 다가(영산), 히시(창녕), 아라(아라가야), 아리히시 가라(남가야) 등 일곱 가야 나라를 친 다음에는 남해안을 돌아 강진에 와서는 신미 다라라는 나라를 무찔렀다고 한다. 그리고는 히리, 히쥬, 호무기, 한고라는 네 나라가 항복했다는 내용이다. 평정한 이들 경상도 가야 나라와 전라도 마한 나라에 담루를 두고 확고를 보내 백제는 다스렸던 것이다. 그 동안에 고고학계의 발굴로 이들 거의 모든 옛 가야 유적에서 백제 유물인 고리자루 칼 아니면 그 본딴 고리 자루 칼이 나온 것이다. 곧 담루이던 이들 가야 나라들은 396년과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 침공으로 백제가 쇠약해지자 독립 왕국으로 거듭났던 것인 바 이들 가야 나라들의 왕릉 급 무덤이 흔히 5세기 이후에 지어졌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제 차례로 고리자루 칼이 나오는

¹⁴ 공주국립박물관, 『백제 사마(斯摩)왕』, 통전문화사, 2001.

정동락, 송정의,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 대가야 박물관, 2004.

조원영, 『황강 옥전 그리고 다라국』, 합천 박물관, 2004.

조수현, 김경덕, 『특별전 도록』, 함안 박물관, 2004

신재용,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 2013.

이들 고장을 알아본다.

(1) 대가야

일본서기에는 이곳을 오호가라(意富加羅) 곧 큰 가야라고 부르고 있다. 칼글의 오호 히꼬란 이름에서 오호는 백제 말로 크다는 뜻이고, 이 말은 아직도 일본말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 고장 이름은 백제 말이다. 2014년에 대가야 박물관이 펴낸 도록 “대가야는 살아있다”에서¹⁵ 대가야 왕들의 무덤인 지산리(池山里) 고분군은 대가야가 성장하기 시작한 서기 400년에서 멸망한 562년 사이에 만든 왕릉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 무덤에서 나온 고리자루 칼은 분명히 백제에서 하사 받은 것일 것이다.

또한 일본 각지의 고분 27군데에서¹⁶ 대가야산 목긴 단지와 아울러 고리자루 칼이 발굴된 것을 보면, 대가야나 왜나라에 있던 백제 다무로들이 같은 백제 문화권에 있었기에 이 같은 활발한 교역이 가능했던 것이며 한 문화권 내서 긴밀하던 정치 관계를 보여준다.

(2) 탁순(卓淳)

탁순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373년 기사에서 백제 독산(禿山) 성주가 신라로 항복해왔다는 글에서 보듯이, 아예 그곳 다무로는 없어져 이곳에는 5세기 이후에 지은 왕릉이 없는 것이다. 독산은 탁순과 소리가 통하고, 독산산성은 가야에서 가장 큰 산성이고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온 백제 사람과 낙동강 하류에서 올라온 왜인이 만났을 법한 낙동강 가의 성주에 있는 산성이며, 탁순은 성주에 있었다고 본다. 성주를 삼국사기에는 호히本彼, 일본서기에는 하헤伴跛로 적은 것에 주목한다.

(3) 다라가야

한편 다라 가야(옥전 유적)에서¹⁷는 400CE 전후 무덤에서 갑옷, 무구, 마구, 장신구 등 금속 유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한 왕릉에서 고리 자루 칼이 네 벌씩이나 나오고 있어서 이곳에서 이 본딴 칼들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의심해본다. 이곳에서는 고소가리도 나오고 있어서 400년대 이전에는 다무로였음이 확인된다. 반남 신촌리 고분, 고흥 길두리, 남원 고분 등에서도 고소가리가 발굴되고 그 발굴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들 고분들에도 고리 자루 칼을 볼 수 있다.

(4) 남가라 또는 금관가야

¹⁵ 신중환, 『대가야는 살아있다』, 대가야박물관, 2004, 38쪽.

¹⁶ 박천수, 『일본 열도속의 대가야 문화』 경북대학, 2009.

¹⁷ 조원용 『황강, 옥전 그리고 다라국』, 합천박물관, 2005.

김해 대성동 고분 91호와 88호에서¹⁸ 발굴된 금동 마구와 금동 띠고리, 구리솥과 같은 유품은 4세기 중반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백제가 이곳을 평정한 시기(369 CE)와 맞물려 이런 유물 또한 백제가 이곳을 치고 다무로를 차린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또한 일본 서기를 보면 오진 25년 대목의 백제기에 적기를 5세기 초에 백제 장수인 모구라 곤시의 자손인 모구라 만지가 이곳에서 세도를 오로지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곳 김해에 다무로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이나 고리자루 칼은 모구라 집안이 갖고 떠났는지 이곳 무덤에서는 안 보인다.

(5) 다가히시 다무로

다가히시 다무로가 있었던 창녕, 영산에도 400년 전후에 왕릉급 무덤을 지었고, 그곳에서 도굴된 오후라(小倉) 수집품에 각종 금동 유품이 있음을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5세기 전반대에 창녕 계성리(桂城里)에는 백제 사람들의 마을 유적¹⁹이 발굴된 것이다. 백제 다무로가 당시에 이곳에 있었기에 생긴 유적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이곳의 무덤에서도 고리자루 칼이 나오고 있다.

(6) 아라가야

함안 말이산(末伊山)²⁰에 있는 무덤을 보면 기원 전후에서 6세기 전반 까지 널무덤, 덧널무덤, 위 튼 돌 덧널 무덤, 옆튼 돌널 무덤으로 바뀌어갔다. 5세기 전반의 덧널무덤인 마갑총 등에서 나오는 마갑, 무구, 장신구를 통해 권력 집중과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 5세기 후반에는 큰 봉토 고분이 집중 조성됐다고 한다. 고리 자루칼도 여럿 나왔으며, 무구, 마구, 장신구, 아라가야식 토기 등이 발굴 됐다. 5세기 중엽에 가와찌(河内) 다무로의 스에무라(陶)라는 유적에서 아라가야식 칠토 그릇을 처음으로 굽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곳 아라 역시 백제 다무로 였기에 이곳 바치들이 대왜 창건 초기에 많이 가와찌 다무로로 옮겨 산 것을 알 수 있다.

II. 규슈에 있던 고마(肥國) 다무로

놀랍게도 “확가 다 기로”라는 대왕 이름이 규슈 다마나 시의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 나온 칼에도 적혀 있어 이곳 역시 백제가 다스리던 다무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에다후나야마 칼글을 이제 알아보기로 한다.

¹⁸ 심재용, 『김해 대성동 고분군 7차 발굴과 성과』, 대성동고분 박물관, 2007.

¹⁹ 조경화, 『이방인의 꿈』, 창녕박물관, 2013.

²⁰ 김광수, 『말이산(末伊山)』, 함안 박물관, 2013.

규슈, 구마모토(熊本) 현, 다마나(玉名) 시, 기쿠수이(菊水) 조(町)에 있는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을 1873년에 발굴해서 출토한 칼에는 은 상감한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후꾸야마²¹가 판독한 글 가운데 김석형에 따라 “크”대를 “工”공으로, “寸”촌 자는 “才”로, 또한 “无”무는 “无”기²²로 고쳐 읽으면 다음과 같다.

治天下獲□□□鹵大王世奉事典曹人名无利工八月中
用大鑄釜併四尺廷刀八十練六十振三才上好□□刀服
此刀者長□子孫洋洋得三恩也不失其所統作刀者
伊太加書者張安也.

이 글을 이두로 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천하를 다스리는 학가 다 기로 대왕 때 섬기던 전조인 이름 기리가 만들다. 팔월에 큰 가마솥을 써서 여든번 달구고, 예순번 후려서 닦자 칼로 아물다. 이 칼을 차는 이는 장수하고 자손이 양양하고 세 은덕을 입을 것이고, 그 다스리는 바를 잃지 않을 지이다. 칼 만든이는 이다가 이고 글쓴이는 장안이로다.”

여기서 대왕 이름 獲□□□鹵는 앞뒤 글자와 못 읽은 글자 셋을 아울러 다섯자로 된 이나리야마 칼글의 대왕의 이름 “학가 다 기로”와 같다고 다들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칼을 만든 “기리”는 기로 곧 개로(蓋鹵)대왕을 모시던 백제 벼슬아치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왕 이름에서 학가는 존칭, “다”는 크시다 또는 머리라는 말이고 “기로”는 개로와 통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 역사 학계의 통설에서는 이 칼글의 대왕 이름이 ‘학가다기로’ 라는데 통설이나 우리나라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는 이 대왕이 개로 이며 따라서 이곳 역시 백제 다무로였다는 것이다. 이 소견은 문헌과 고고학 증거를 2장에서 열거한 바이다. 일본 통설에서는 이 대왕 이름을 유랴꾸(雄略)천황 곧 “와까다께”로 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이름에서 “로”가 없으며, 가당치 않은 주장인 것이다. 더구나 이나리야마 칼글에서 나오는 네 가야 나라는 한반도 안에 있어서, 4세기에 왜왕이 다스렸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다음에는 만든지 “기리”를 알아본다. 서기 458년에 송나라에 보낸 개로 대왕의 상표문을 보면, 좌현왕(左賢王) “여곤”(余昆)

²¹ 編輯委員會, 『國室, 銀象 嵌銘大刀』, 東京國立博物館, 平成 午年.

編輯委員會, 『江田船山古墳』, 熊本縣玉名郡菊水町, 1989.

²² 福山敏男, 「江田發掘大刀及び隅田入幢神在鏡製作年代について」, 『앞 문헌3』, p.111.

후시미(伏見)의 서도(書道) 대사전을 보면 당나라 이후에는 无자와 无자는 확연히 달리 쓰이나 위나라 이전에는 혼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류렬, 『세 나라 시기 이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사, 1983. 24쪽

과 우현왕(右賢王) “여기”(余紀)라는 이름²³이 보인다.

“여곤”에서 곤은 곤지(昆支)의 첫 자를 딴 이름이다. 곤지왕은 개로 대왕의 아우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는 “기리”의 첫 자만 딴 이름으로 볼 때 이 칼을 만든이는 바로 백제의 왕족인 우현왕 여기(余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노 군사 제도²⁴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는 직할지 왼쪽 다무로는 좌현왕이, 직할지 바른 쪽 다무로는 우현왕이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²⁵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칼글에서

²³ 확고(獲居)라는 칭호는 369년 가야 평정에서 생긴 다무로의 고을님을 가르키다가 41년에 고(乎) 다무로의 고을님에게도 쓰였으며, 458년에 생긴 가와찌나 고마(肥) 다무로의 고을님에게는 좌현왕, 우현왕이라는 호칭도 쓴 것인바 동성왕 시대인 479년이 되면 다무로의 고을님에게는 후왕(侯王)의 호칭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벼슬의 고유 칭호에서 중국 칭호로 바뀌어감을 볼 수가 있다.

²⁴ 江上波末,『騎馬民族の國家』, 中央新書, 1986.

²⁵ 가와찌 다무로는 백제에서 보면 왼쪽에 규슈 고마 다무로는 바른 쪽에 있어서 좌현왕, 우현왕이 두 곳에 각각 책봉된다. 개로대왕의 아우 곤지왕은 458년 당시에 가와찌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일본 서기 461년 대목에서 곤지가 왜로 올 때 그 서울에 이미 다섯 아이가 있었다고 적고 있으며, 458년 이전부터 곤지는 가와찌의 왜나라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458년 상표문에서 개로대왕은 아우 곤지왕을 그가 살고 있는 가와찌를 다스리는 좌현왕으로 책봉한 것이다.

461년에 곤지왕이 백제에서 형왕을 보고 의논이 있은듯 463년에는 백제 바치(工人)들이 대거 이민 온 것을 유랴꾸 7년 대목은 적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本) 나라와 그 고을인 다무로 사이였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기 478년에 왜왕 부(뒤에 무령대왕)가 보낸 상표문에는 백만 대군을 보내 부왕의 원수인 고구려를 치겠다는 글귀가 있다. 왜왕이 다스리던 땅이 백제 다무로였기에 민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뜻을 담은 글인 것이다.

서기 479년에는 곤지왕의 둘째 아들이 백제로 가서 동성왕이 되는 길에 호위를 맡은 군사 500명을 쓰꾸시 곧 규슈에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바로 규슈 고마 다무로의 군사였겠으며, 이것 역시 규슈에 있던 다무로의 존재를 밝혀주는 사실일 것이다.

“鹵”로의 서체와 6세기 능산리에서 나온 목간²⁶에 적힌 “鹵”로자의 서체가 꼭 같다는 것이다. 세 글자의 글솜씨는 백제 서울 “가나구루”(漢城)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이 칼글의 글귀 팔월 “中”중에서 중자는 무라야마와 밀려²⁷가 지적인 바 백제식 용자이며, 처격 “에”를 뜻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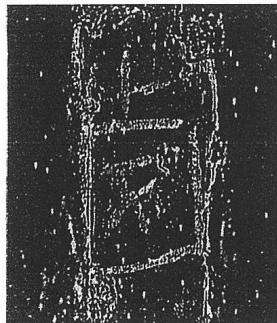
한편 글쓴이 “장안”을 보면, 백제로 낙랑에서 옮겨온 한인들 성씨인 장(張)씨 일 것이 짐작된다. 또한, 손환일²⁸에 따르면, 이 칼글의 서체는 고구려 서체와 닮았다 하며, 이 칼글이 백제에서 쓰였음을 시사한다. 이 칼이 출토된 고분이 있는 지명 “다마나”는 “다마라”라는 흔한 백제 지명에서 나왔을 것이며, 백제 이주민이 살던 고장^{29,30}임을 알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다후나야마 칼 글의 주인공 “기리” 곧 “여기”는 백제 우현왕이며, 그 옛 지명이 히노구니(肥國)라고도 고마라고도 불렀던 이곳 다무로를 다스리던 백제 확고 곧 후왕이었다는 것이다. 이 다무로를 편의상 고마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곳이 백제 다무로였음은 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술한 백제 유품 특히 금동 고소가리(冠) 에서도 여실히 뒷받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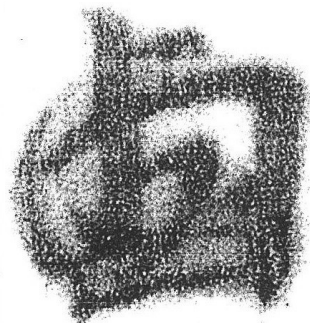
고고학 유품과 유적



26 이나리야마 칼글의 '鹵' 자



에다후나야마 칼글의 '鹵' 자



6세기 능산리 목간의 '鹵' 자

『한국 고대목간(木簡)』 창원(昌原) 국립 문화재 연구소, 2004, 316쪽(도판 297)

²⁷ Murayama, S and Millar, R.A. 「The Inariyama Tumulus sword Inscriptio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5. No.2 (1979), pp.405-438.

²⁸ 손환일, 『이나라야마 고분 출토 철검과 에다후나야마 고분 출토 철검의 서체(書體)』, 문화사지, 27권, 2007.

²⁹ 大場磐雄, 『古代氏族の研究』 永井出版社, 東京, 1975, p.58. , 이 책을 보면 다마나 시 일대는 백제 후손인 모노노매(物部) 씨족이 많이 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³⁰ 김성호, 『비류 백제와 일본국가의 기원』, 지문사, 1982, 52쪽. 이 책을 보면, 비류계 백제 이주민들이 살던 다모라(耽羅, 제주도), 다마라(對馬, 대마도), 등 섬과 한반도 바닷가 지명에 '다마라'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옆 틈 고분에서는 술한 백제 유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 보기로 한다.

(i) 금동 고소가리(冠)³¹

백제는 확고 곧 후왕에게 금동 고소가리와 금동 신발을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최근에 금동 고소가리가 옛 백제 땅 여러 군데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들 고소가리는 등이 둥근 고깔 모양이고 뒤쪽에는 술을 꾸며 달을 대가 붙어 있기도 하다. 이들 고소가리가 발굴된 유적지는 군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공주 수천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이다. 그런데 이런 금동 고소가리가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도 나온 것이다. 이 유물이야말로 이곳에 백제 다무로가 있었다는 유력한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ii) 금동 신발³²

금동 신발은 흔히 고소가리와 함께 발굴되나 그 수는 고소가리 수 보다 많다. 이 백제 금동 신발은 나주 신촌리, 나주 복암리, 익산 입점리, 무령 대왕 무덤, 원주 복천리, 공주 수천리, 서산 부장리, 고흥 길두리 등지에서 출토됐다. 이들 금동신발은 모양이 비슷하고, 흔히 구갑 무늬로 꾸며졌고, 신발 바닥에 징이 아홉 개 박힌 것이 특징이다.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신발도 이들과 닮았고 백제 대왕의 하사품이다.

(iii) 구리거울³³

구름 무늬나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 외에 수레나 말 도안이 들어 있는 것이 이 고분에서 발굴됐다. 구름 무늬와 짐승 도안이 찍힌 구리 거울은 무령 대왕의 무덤과 사카이시에 있는 다이센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며, 이들 거울은 백제 한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iv) 다른 유물들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리 거울 외에도 이 무덤에서는 술한 꾸미개, 마구, 갑옷 등이 출토되었고, 백제서 가져온 것들일 것이다.

(v) 기꾸찌 산성³⁴

³¹ 박종환, 이훈, 『한성에서 웅진까지』, 충남 역사 문화 연구소, 2006, pp.50-59.

³² 김성호, 앞 문헌 30.

³³ 김성호, 앞 문헌 30.

³⁴ 산성 축성 기록은 없으나, 그 기꾸찌 상성안의 여덟 모기단의 제사터나 백제 기와는 기꾸찌 산성이 이른 백제 시대것임을 뜻한다.

끝으로 기꾸찌 산성을 알아본다. 이 산성은 여느 백제 산성처럼 고을 가까이 지었다. 산과 벼랑을 에워싼 백제식 산성이며 둘레는 3.5km이고 돌과 진흙으로 쌓은 성벽은 높이가 4.3m가 넘는 곳도 여럿 있다. 성 안에는 집터가 열 군데 있고 백제기와 조각이 나오기도 한다. 더구나 여덟 모기단을 가진 사당 터가 발굴됐는데, 백제의 이성 산성 안에 있는 사당 터와 그 꼴이 매우 흡사하다. 이 여덟 모의 사당은 그 주기가 여덟 해인 섯별 등 별을 모시던 졸본 부여의 신앙 유품을 이어받은 백제 신앙 유품을 보여주는 유적임이 짐작된다. 졸본은 섯별을 뜻하며, 키르기스나 우즈베키스탄의 섯별 숭상의 풍습과 상통한다.³⁵

이렇듯 에다후나야마 고분의 칼 글은 그 주인공이 백제 개로 대왕이 보낸 우현왕 여기 곧 기리이며, 백제 확고 곧 후왕인 우현왕이 다스리던 다무로가 다마나 시 일대에 있었음을 밝혀주는 소중한 칼글이다. 이 고분에서 나온 술한 백제 유품인 금동 고소가리, 금동 신발, 구리거울 그리고 여덟모 신앙터가 있는 백제식 산성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III. 가와찌(河內) 다무로

우현왕 “여기”가 다스리던 다무로가 규슈 다마나 시 일대였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좌현왕 여곤이 다스리던 땅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백제에서 볼 때 왜땅 규슈는 오른쪽이기에 이 곳에 우현왕을 두었더라면, 좌현왕이 다스리던 왼쪽 다무로는 당연히 왜땅의 혼슈 어디인가에 있었을 것이 짐작된다. 이 우현왕과 좌현왕 이야기는 개로 대왕이 송나라에 서기 458년에 보낸 상표문에 나온다. 개로 대왕은 서기 455년에 즉위했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458년에 보낸 이 상표문의 중요한 내용을 삼국사기는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다른 모든 상표문들은 인용하면서 이 상표문만은 뺀 까닭은 무엇일까? 여곤은 개로 대왕의 아우 곤지왕을 가리키며, 곤지(昆支)는 본 이름 “고니끼”의 이두 표기이고, 관례로 외자 곤(昆)으로 이름을 적은 것이다.

좌현왕은 권력 서열이 대왕 다음이며, 이 자리를 여곤이 맡고 있던 것이다. 좌현왕 여곤은 서기 461년에 백제 개로 대왕을 뵈고 난 뒤에 왜 땅에 왔을 때 그곳 서울에 이미 다섯 아이를 두고 있었다고 일본서기 유랴꾸 5년 대목은 적고 있다.

아이들이 다섯이나 그곳에 있었다면 곤지왕은 벌써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고 서기 458년에는 왜땅 서울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 된다. 곧 왜땅 서울이 좌현왕 여곤이 임명된 곳이고 이곳이 백제 다무로였던 것이다. 이 다무로는 가와찌 일대에 있었으므로 편의상 우선 가와찌 다무로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당시 이 다무로의 서울은 어디였을까? 우리 짐

편집자, 『기꾸찌(菊智) 산성』, 구마모토 교육 위원회 보고서, 2006.

³⁵ 한종섭, 『위례성 백제사2』, 집문당, 2004, p.261.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 아시아에서는 섯별을 쏘르본이라고 하며 그곳에 산다는 말 실령을 모시는 민속이 있다.

작에는 가와찌(河内, 오사카 만의 동쪽 일대)의 어느 곳이였을 것이고 아스까 일 것으로 본다. 가와찌(河内)란 본시 가이쥬(開中)라는 백제 말에서 나왔고 갯벌이라는 뜻이다. 옛 고장 이름이 가와찌인 곳에는 후루찌(古市)무덤떼와 모즈(百舌鳥)무덤떼가 있으며, 5세기 고분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백제 관례로 봐서 임금이 살던 서울 가까운데 왕실의 무덤을 쓰게 마련인 것이므로, 거대한 이들 무덤 떼 가까운 데에 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곤지왕이 가와찌 다무로에 좌현왕으로 책봉됐을까? 그 실마리는 삼국사기와 송서에서 찾을 수 있다. 개로 대왕과 그 아우 곤지왕의 아버지는 비유 대왕이라고 삼국사기와 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에 각각 적혀 있는데 비유 자신은 전지 대왕의 서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다.

사실 삼국사기는 비유가 선왕 구이신의 맏아들이라고 적고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구이신은 전지의 아들로 서기 427년에 젊어서 돌아갔고 그 손자 빨인 곤지왕이 461년에 아이를 다섯이나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곧 비유는 전지왕이 왜땅에 397년부터 405년까지 있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 비유는 왜 땅에 있었을 때 두 아들 곧 개로(본 이름 가스리)와 곤지(본 이름 고니끼)를 두었던 것이다. 일본 서기 461년 대목에 그들 이름이 나온다.

다섯 왜왕

마침내 서기 427년에 구이신 왕을 이어서 비유는 왜나라에서 백제로 와서 대왕 자리에 오른다. 재위 16년 되는 서기 443년 즈음에 비유는 왜땅에 있을 때 낳은 맏아들 가스리를 왜왕 자리에 앉힌 것이다. 서기 369년에 평정한 가야 땅에 백제 대왕이 확고를 보내 다스렸듯이, 백제 대왕의 외척인 오진(應神)이 평정한 가와찌 왜나라 땅에 백제 대왕 비유는 그 아들 가스리를 확고로 앉히면서 왜왕 사이(濟)가 선 것이다. 이 때가 송서에 따르면 서기 443년 즈음이다. 그 선왕이던 왜왕 진(珍)은 왜나라의 개국왕 오진(應神, 眞々)³⁶의 손자³⁷이며 진眞씨 가문이다. 한편 왜왕 사이는 비유 대왕의 아들로써 여(余)씨 가문이다. 따라서 이 두

³⁶ 金在鵬, 『古代日本國と朝鮮』, 大和書店, 1975.

오진(應神)의 실명은 호무다 와께라고 일본서기는 적고 있다. 와께는 확고이고 호무다는 고마 땅 곧 현 공주이고 따라서 이는 고마 확고 였던 것이다. 이 글은 오진이 진眞씨임을 밝히고 있다.

³⁷ 송서는 심약(沈約)이 서기 502년에 완성한 역사서이고 당대 실록을 기초로 쓴 책이다. 양서는 요사렴(姚思廉)이 서기 636년에 완성한 역사서이고 특히 그 왜인전은 위지 왜인전을 비롯한 각 역사서의 왜인전을 편집하여 적은 글이며 그 왜왕 계보에서 왜왕 부의 할아버지가 왜왕 미(彌)라고 적은 것은 왜왕 부의 상표문에서 조네(祖禰)를 잘못 베낀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

참고 : 吉田晶, 『倭王権の時代』, 新日本新書, 2001, p84.

왜왕은 성씨가 다른데, 이것은 송서에서 이 둘 사이의 혈연 관계를 못 적은 사실³⁸과 부합한다.

왕권 교체가 평온하게 왜 왕족이나 가신의 이의 없이 이뤄진 것은 바로 백제 대왕과 왜나라 왕실의 관계를 반증하는 것으로 본다. 왜왕 사이는 455년에 백제로 와서 개로 대왕자리에 오르는데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왜왕 부武가 송나라에 428년에 보낸 상표문이다.

왜왕 부의 상표문(서기 478년)에서 “망고사이(亡考濟)라는 글귀와 “엄상부형(奄喪父兄)이라는 글귀가 있다. “망고사이”는 돌아간 아버지 사이를 뜻하고 이이가 왜왕 부武 곧 사마왕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진철³⁹이 밝힌 바 “엄상부형”은 475년 고구려 침공 때 돌아간 개로 대왕(곧 왜왕 부의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는 뜻인 것이다.

왜왕 사이와 개로 대왕은 둘 다 왜왕 부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은 443년 이래로 왜왕이던 사이가 455년에 개로 대왕으로 자리를 옮김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455년에 왜왕 자리는 사이(곧 가스리)의 아우인 곤지(곧 고니기)가 이어 받아 왜왕 고오興가 됐음을 뜻한다. 실제로 송서는 451년과 460년 사이에 왜왕 사이가 죽고, 세자 고오興가 상표문을 보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왜왕 사이는 죽지 않고 백제로 갔던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458년에는 곤지를 좌현왕에 개로 대왕인 형왕이 임명하면서 가와찌 다무로 일대를 다스리는 백제의 확고 곧 후왕이 됐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40 41}

이제 왜왕 고오興가 된 곤지는 개로 대왕의 458년 상표문에서 보듯이 이 해에 백제의 좌현왕에 제수되는데 그 재위는 언제까지였을까? 송서에 따르면, 477년에도 왜왕이 상표문을 올렸고 478년에는 왜왕 부武가 상표문을 올렸다. 곧 관례에 따라 477년의 상표문에서는 왜왕 고오의 사망을 송나라에 알린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⁴² 왜왕 고오를 왜왕 부가 이은 것

³⁸ 藤間生太, 『倭 五王』, 岩波新書, 1982, p.36.

³⁹ 소진철, 『금석문으로 본 무령 대왕의 세계』, 원광대학 출판국, 1994.

⁴⁰ 유라쿠 5년 대목에서 곤지왕이 왜나라 서울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섯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글에서 보듯이 곤지는 461년 이전에 왜나라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⁴¹ 세자 고오라는 말에서 고오는 세자이므로 왜왕 사이(濟)의 아들이라고 송서 편자가 잘못 안 결과로 사이와 고오 사이가 부자로 적었다고 보이며, 이것은 잘못이며, 사이와 고오는 형제사이 었던 것이다.

⁴² 삼국사기 기록에는 곤자왕에 관한 것으로 “문주왕 3년 4월에 내신 좌평이 되고 7월에 죽었다”는 글과 동성왕 대목에서 문주왕의 아우 곤지왕의 아들이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또 문주왕은 개로왕의 아들이라고 적고도 있다. 그렇다면 곤지왕과 문주왕은 형제로서 개로왕의 두 아들이 된다.

그러나 일본서기나 신찬성씨록을 보면, 한결같이 개로와 곤지가 형제임을 알수있고 곤지왕의 후손들은

이 되고, 이 왜왕 부는 개로 대왕의 아들 시마/사마임은 두 말 할 것 없다.

그렇다면 455년부터 477년까지 22년 동안 곤지왕은 왜왕으로 재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따르면 유랴꾸 천황도 457년에서 479년까지 22년 동안 재위한 것으로 적혀 있다. 477년에 왜왕의 교체가 있었으므로 유랴꾸 재위 말년의 연도는 착오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같은 땅을 다스리고 치세 기간 22년이 같은 왜왕 고오/곤지와 유랴꾸 천황은 같은 인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곤지 왕/ 왜왕 고오(興)도 아이가 다섯 있었고, 유랴꾸도 아들 셋에 딸이 둘 있었다고 일본 서기는 적고 있다. 유랴꾸의 형왕인 안꼬(安康)천황이 곤지/왜왕 고오의 선왕이므로 왜왕 고오/유랴꾸의 선왕인 안꼬는 왜왕 사이에 비정된다. 곤지왕과 유랴꾸 천황이 한 사람이라면, 개로의 부왕이 비유라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고, 유랴꾸/곤지의 부왕은 인교(忍恭)라고 일본 서기는 적고 있으므로 비유와 인교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인교가 서기 412년에서 453년 까지 재위했으나 마지막 18년 동안에는 아무 기사가 없고 송서에 따르면 왜왕 산(讚)이 421년에서 429년까지

변창해서 아스까베 일가를 이루며 아스까베 신궁에 그 조상 곤지왕을 모시고 있다.

또 남제서에는 문주왕이 동성왕의 할아버지라고 나온다. 문주와 곤지는 형제가 아닌 것이다.

남제서에는 모도(牟都)가 모대(牟大)의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모도와 모대를 이두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말
牟	miəu	Mo / mu	모 / 무
都	Tu	tu	두
大	Tai	ta	다
末	mua	ma	마
文	miuan	mu	무
周	tsiau	tu	두

그러므로 牟都, 文周는 무두, 牟大, 末多是 마다로서 牟都是 文周王을 牟大는 東城王이 되므로 文周王은 東城王의 할아버지이다. 한편 일본서기 유랴꾸 21년 대목에는 문주가 개로의 모제 母弟로 나온다. 곧 문주는 동성(마다)의 외할아버지이다. 따라서 남제서와 일본서기의 두 기록에 다 맞추려면 문주는 동성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야한다.

좌현왕은 권력 서열이 둘째이고 보면, 막강한 벼슬인데, 475년 고구려 침공시 곤지왕의 모습이 삼국사기에 전혀 안 보이며 그가 좌현왕이라는 중책 사실 기록이 이 사기에 없다는 것은 곤지왕이 아예 백제에 있지 않았다는 증좌인 것이다.

이 같은 여러가지 의문에서 곤지왕이 좌평이었다는 삼국사기 기사는 의문 투성이인것이다.

재위했고, 왜왕 진(珍)이 그 뒤 443년 즈음까지 재위했으므로 이 중국 기록과도 어긋난다. 곧 인교는 가공 천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 기록대로 리쥬(履中) 천황과 그 아우인 한제이(反正) 천황 형제는 송서에 적힌 왜왕 사이의 선왕 왜왕 산(讚)과 그 아우 왜왕 진(珍)에 비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이센(大山) 릉

왜왕 부가 478년 상표문에서 짐작되는 3년상을 지냈을 개로/왜왕 사이의 빈소는 왜나라에 있었겠고, 477년에 돌아간 곤지/유랴꾸의 빈소도 왜왕 부/시마는 3년상을 치른 다음에 무덤을 썼을 것이다.⁴³ 이 무덤이 다름아닌 다이센 릉(소위 닌도꾸 왕릉)일 것으로 우리는 본다.

고고학계의 통설⁴⁴로 다이센 왕릉은 5세기 말기에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봉황 무늬 고리 자루 칼과 짐승(神獸) 새긴 구리 거울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보존되고 있는데, 무령 왕릉의 유품인 칼과 거울을 닮았다⁴⁵는 것이다. 또한 로마 유리잔과 접시, 달개(瓔珞)가 달린 금동 갑옷과 투구도 출토됐다는데, 이런 위세품은 백제 왕실에서 전수됐을 것이 짐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품은 다이센 무덤의 모난 곳에서 출토됐고, 둥근 부분에서는 빈 돌널만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무덤의 높은 둥근 쪽에는 혹시 개로/사이의 가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모난 아래쪽에는 곤지/유랴꾸의 널이 묻혀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은 왜왕 부/시마가 돌아간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효심으로 모신 무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와찌 다무로는 5세기 중반 이후 백제 왕실 직계의 왕족이 다스리던 다무로였던 것이다. 서기 461년에 형왕 개로를 찾아온 좌현왕 곤지는 군사 문제 곧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는 일, 경제 문제 곧 백제 바치(工人)를 대거 왜땅에 보내는 일, 가족 문제 곧 만삭인 왕비가 왜 땅에 가서 낳을 왕손의 양육 등 굵직한 논의를 했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서기 475년에 고구려가 대거 남침할 때 왜군 백만이 백제를 도우려 했음을 왜왕 부의 478년 상표문은 시사하며, 일본 서기, 유랴꾸 7년 463년 대목은 이민간 백제 바치 곧 딜그릇, 길마, 길쌈, 그림 바치, 글쑼 등이 각 분야에서 왜 문화 개척에 이바지했음을 적어놓았고, 일본서기는 시마 왕자가 서기 461년에 규슈 가가라 섬에서 태어났고, 서기 477년에 왜

⁴³ 백제 왕릉과 왜나라 왕릉은 물론 생김새가 다르다. 그러나 왜나라에 있던 백제 왕록은 그곳 무덤 풍속을 존중하고 따랐을 것일 뿐이다.

⁴⁴ 森浩一, 『巨大古墳の世紀』, 岩波書店, 1986.

⁴⁵ 공주 박물관, 『백제 사마왕(斯麻王)』, 통전 문화사, 2001.

왕 부가 되기까지 곤지왕 곧 왜왕 고오(興)가 조카를 보살핀 것을 시사한다. 시마가 왜왕부가 되고 이가 나중에 백제 무령 대왕이 된 것을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와 무령 대왕의 묘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고학 고찰

가와찌 다무로의 존재를 밝히는 고고학 증거는 더 무엇일까? 이곳에 지어진 크나큰 무덤 때 두 군데 곧 모즈百舌鳥 무덤 때와 후루이찌古市 무덤⁴⁶ 때와 더불어 이곳 가와찌 평야에 널린 백제 유품이 나오는 유적과 유품이다. 어째서 이곳에 크나큰 무덤 때가 그것도 두 군데나 5세기 초부터 6세기 중반까지 지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가와찌 일대를 다스리던 진씨 왕족과 여씨 왕족 두 집안의 임금들과 그 일족들이 따로 그러나 가지런히 묻혔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우선 후루이찌 무덤 때를 보면 가와찌 평야에 흘러드는 야마도 냇물과 이시가와 냇물이 만나는 곳 가까운 둔덕에 자리하고 있고 남북 4km, 동서 2.5km 되는 곳에 곤다야마譽田山 고분을 비롯한 80기 가량이 지어져있다.

이들 고분에서 나온 원통 토우나 갑옷등을 봐서 4세기 말에서 6세기 중기까지 지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후루이찌 무덤 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쓰도시로야마津堂城山 고분이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700m인 곤다야마 고분이다. 한편 이보다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오사카 만을 바라보는 둔덕에 지은 모즈 무덤 때에는 길이 820m인 다이센大山 고분을 비롯한 120기의 무덤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무덤 수는 46기다.

이 두 무덤 때는 고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 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모즈 무덤 때 안에 있는 다이센 무덤은 일본에서 가장 큰 무덤이며 둥근 부분 지름이 71.3m, 높이 17m이고 온 길이는 840m인 그 축조 시기가 5세기 말이자 그 유품이 봉황무늬 고리 자루 칼이며, 로마 유리 잔의 출토와 달개步搖 달린 금동 갑옷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⁴⁷ 보아 곤지 곧 유랴꾸 임금의 무덤일 것이라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 왕족 집안이 같은 무덤 때에 묻혔을 것으로 미루어 이 모즈 무덤 때는 여씨 왜 왕족의 묘역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후루이찌 무덤 때는 오진 임금을 비롯한 왜왕 산讚(421~429)과 왜왕 진(珍)(430~442) 등 진眞씨 왜 왕족의 무덤 때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무덤 때 동쪽과

⁴⁶ 広瀬和男, 「大王墓の系譜と其の特質(上,下)」, 『考古學研究』, 135,136, 1987,1988.

古市古墳群研究會, 『古市古墳群とその周辺』, 摂津泉文庫, 1985.

⁴⁷ 森浩一, 앞 문헌 44.

북쪽에 가와찌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이곳 일대는 물진 벌판이며, 이곳 일대가 이 다무로가 있던 곳일 것이다. 당시 5세기에 이곳은 개발할 일꾼이 매우 아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과 기술을 종주 나라 백제에서 마련한 것을 일본 서기와 이곳 유적의 백제 유품이 밝혀준다. 일본서기 오진 대목을 보면 5세기 초에 많은 백제 이민⁴⁸이 왔음을 적고 있고 유라구 대목에서도 많은 백제 바치工人⁴⁹들이 이곳으로 건너 왔고 수공업 각 분야에서 이바지 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후루이찌 무덤 떼에서 딸린 무덤들은 네모난 무덤들이고, 모즈 무덤떼에서 딸린 무덤들은 둥근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진짜 왕실이 백제를 떠난 4세기까지는 백제에서는 네모난 무덤만을 썼고, 5,6세기 백제 왕실의 무덤은 둥근 무덤들뿐이었던 것이 딸린 무덤 양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고고학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기시 도시오⁵⁰에 따르면 오사카 만 연안에 있던 오도모미 나루에서 시작하는 옛날 한길이 둘 있었고 오쓰미찌 길과 다지히-미찌 길이라는 옛길이란다. 오쓰-미찌 길은 모즈 무덤떼의 다데이야마 무덤 북단을 동쪽으로 곧장 뻗어가서 후루이찌 무덤떼의 이찌노야마 무덤 북단을 스쳐가며 당시 서울이던 아스까까지 이르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다지히-미찌 옛 길은 같은 다데이야마 무덤 북단에서 동남으로 뻗어서 다이센 능의 북단을 지나 동쪽으로 가서 후루이찌 무덤떼의 곤다야마 무덤의 남단을 스쳐서 역시 당시 서울인 아스까에 이르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길이야말로 종주 나라 백제와 당시 가와찌 다무로의 서울 아스까^{明日香, 飛鳥}를 물과 바다 길로 이어주면서 사람과 문물을 날아준 요긴한 나라 길이었었던 것이다. 아스카 일대에는 150년 동안 왜나라 서울이었고 왜왕족이 살았던 오시사가 궁이 있던 사쿠라이 시, 왜왕부 곧 무령 대왕의 후손인 야마토^{大和} 집안이 살았던 덴리 시, 곤지 왕의 후손이 살았던 하비끼노 시 등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며 5,6세기를 통해 고대 일본의 정치 및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이다.⁵¹

⁴⁸ 서기 400년에 한반도 남단까지 고구려 기마군단 5만이 쳐내려 왔다가 갑자기 물러간 뒤 백제 난민이 왜로 가려던 길을 막던 신라는 볼모를 왜에게 주면서 길을 내준다. 이에 유즈끼(弓月)가 이끄는 120현 사람이 건너 왔고 이어서 아지끼도 12현의 사람을 이끌고 왔다고 적고 있다.

⁴⁹ 유라구(雄略) 7년 대목을 보면, 곤지왕이 백제를 다녀온 3년 뒤 서기 464년에 각 분야의 바치가 백제에서 왔다고 적고 있다.(그림 바치, 길마 바치, 그림 바치, 깃 바치, 글 바치 등)

⁵⁰ 岸敏男, 『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1988.

吉田晶, 『倭王權の時代』, 新日本新書, 2001, P108.

⁵¹ 게이따이 천황은 오시사가 궁에 살았고, 그 할머니 이름은 오시사가(忍坂) 오나까(大中) 부인이고, 요메이(用明) 천황의 맏아들 이름은 오시사가(忍坂) 오에 이고, 그 아들 쇼메이 천황은 오시사가 능

5세기 초 이래로 가와찌 평야에는 달陶 그릇 가마터가 즐비하게 생겨난다. 이윽고 이른바 스에무라陶邑라는 요업 고을이 일어난 것이다. 이곳에는 1000기가 넘는 용 가마 터가 밝혀졌다. 시루나 부뜨막 등 한식 토기와 더불어 달 그릇(1200℃ 이상에서 구워낸 토기)은 백제 이주민이 도입한 것이다. 크나큰 고분에는 원통 토기를 두르게 됐고, 재사용 달 그릇의 수요도 많고 고분 축조가 각지에서 늘어나면서 요업이 크게 발달됐다는 것이다. 요업과 더불어 논공구, 갑옷, 마구, 도금 등 수공업이 백제 바치들의 이바지로 크게 발전한 것이다.⁵²

IV. 맺는 글

황국 사관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증거로 삼았던 이나리야마 칼글이 알고 보니 5세기에 동경 지방이 백제의 다무로였음을 밝히는 소중한 자료였던 것이다. 이 칼글은 백제 사람이 백제말로 지은 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 다무로가 두 군데나 더 5세기에 옛 일본 땅에 곧 오사카 지방의 옛 가와찌와 규슈 다마나 시 일대에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 다무로 가운데 가와찌 다무로는 가장 역사롭고 현 일본 왕실과 직결된다.

서기 396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쳤을 때다. 고마(현 공주)를 다스리던 확고(獲居, 候王)가 난리를 피해 일본 오사카 남부로 망명하고 그 고장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대왜(大倭) 곧 야아도라고 일컫고 있을 때 백제 도기(腆支) 태자가 그곳에 가서 397년에서 405년까지 머물고 있었다.

이 때 낳은 아들이 비유毗有였다. 비유는 이곳에서 두 아들 가스리와 고니끼를 낳았다. 도기 태자가 백제로 돌아가서 임금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 구이신이 되는데 젊어서 요절했다. 그러자 대왜에 머물던 도기왕자의 아들 비유가 백제에 와서 구이신을 이어 임금 자리에 오른다.

한편 대왜를 개국한 오진 임금 곧 원 고마 확고(일본 칭호 호무다 와께)의 두 손자가 왜왕 산과 왜왕 진으로 송나라의 책봉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443년 즈음에 비유 대왕은 아들 가스리를 왜왕에 앉히니 이가 왜왕 사이(濟)이다. 대왜는 이제 정식으로 백제 다무로가 된 것이다.

개로 대왕은 아우 곤지왕을 서기 458년에 좌현왕으로 임명했고 아울러 규슈 다마나 지방에는 왕족 여기(余紀)를 우현왕으로 책봉하면서 이곳에도 백제 다무로가 생긴 것이다.

443년에 왜 왕실이 진眞씨에서 여余씨로 바뀐 것이다. 이 왕실 교체는 지극히 평온하고도

에(587년) 묻혔다. 이렇듯이 오시사가는 일본 천황가와 밀접한 곳인 것이다.

⁵² 広瀬和男, 「古代の開発」, 『考古學研究』, 卷 30-32, 1983.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집안은 후루이찌 무덤 떼와 모즈 무덤 떼라는 두 묘역을 따로 쓴 것으로 보인다. 곧 모즈 무덤 떼에는 왜왕 고오興 곧 곤지昆支/雄略왕이 묻힌 다이센 무덤이 있고 후루이찌 무덤 떼에는 오진 임금을 비롯해 왜왕 산과 왜왕 진과 그 집안 어른들이 묻힌 것으로 짐작된다.

왜왕 고오를 이어서 개로 대왕의 아들 시마가 왜 왕위에 올라 왜왕 부武가 되고 서기 502년에는 백제에 와서 무령 대왕이 됐다. 스다하찌만隅田八幡 거울에 새긴 글이⁵³ 밝히는 바 그 뒤를 502년에 무령 대왕의 사촌 다나데 왕 곧 게이따이 천황이 왜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 사실을 놓고 볼 때 왜왕부/시마가 477년부터 502년까지 가와찌 다무로/대왜를 다스리던 사실을 감추려고 일본 서기는 세이네이, 겐소, 닌겐, 부레쓰라는 네 가공 천황을 꾸민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왜왕 사이, 고오, 부가 다스리던 가와찌 다무로는 가와찌 평야를 포함한 작은 땅이었을 것이다.

이들 세 다무로는 서기 531년에 가와찌 다무로와 고마 다무로(규슈 다마나)가 싸울 때까지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이다.⁵⁴ 그 뒤에 이들 다무로는 가와찌 다무로 곧 대왜를 맹주로 아울러지면서 발전하다 백제 멸망 후에는 일본으로 거듭나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⁵³ 김영덕, 『백제와 다무로였던 왜나라들』, 5장, 글로벌콘텐츠, 2013

스다하찌만(隅田八幡) 거울에는 48자의 글이 새겨진 바, 무령 대왕이 자신을 닮은 바 “해나라”(日十)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왜왕 자리를 물려 받은 사촌 형을 “다나데 왕”(男第게이따이 천황)이라고 부르며 등극을 축하하며 장수를 빌고 신임을 주는 글을 새긴 거울이다.

백제 임금은 대왕, 가와찌 다무로를 상속한 왜왕(게이따이 천황)은 후왕으로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개로 대왕이 마찬가지로 왜왕 고오/유랴꾸 천황을 좌현황으로서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다나데 왕이 살던 궁집은 오시사까 궁이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도 오시사까 오나까 부인이고, 다나데 왕의 증손 비다쓰 천황의 아들은 이름이 오시사까- 히고히도오에 이고, 그 아들 조메이(629-641) 천황의 능 이름을 오시사까 능이라고 적혀 있듯이 ‘오시사까’라는 곳은 150년 동안 왜왕실과 인연이 깊은 지명이며 정치 중심지였다고 할 것이다.

⁵⁴ 이와이(磐井) 난리가 서기 527년에 일어났다고 일본서기는 적고 있다. 통설에서는 중앙 정권이 지방 호족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으로 보았지만, 야마오(山尾)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백제가 429년에 고구려에 크게 지자, 신라가 이 틈에 가야를 치기 시작하고 다급한 대가야 임금이 직접 대왜에 와서 원군을 청원했고, 이 원군 시비에서 대왜 세력과 규슈 세력 사이에 생긴 전쟁으로 봤다. 그러나 야마오도 이나리야마 칼클이나 에다후나야마 칼글의 대왕은 유랴꾸 라면서 통설의 틀을 못벗어났다. 이와 달리 우리는 가와찌의 다무로와 규슈의 다무로가 각각 독립하여 세력이 커진 결과 국익 놓고 싸운 분쟁이라는 것이다. 수서에서 보듯이 7세기 초까지도 북규슈에는 다른 왕국이 존재했던 것이다.

山尾幸久, 『筑紫君磐井の戦争』, 新日本出版社, 2001.

이렇듯이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 다무로가 그 모태였던 것이다. 가와찌 다무로를 다스리던 왜왕들은 백제 왕실에서 나왔고 이 왕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왕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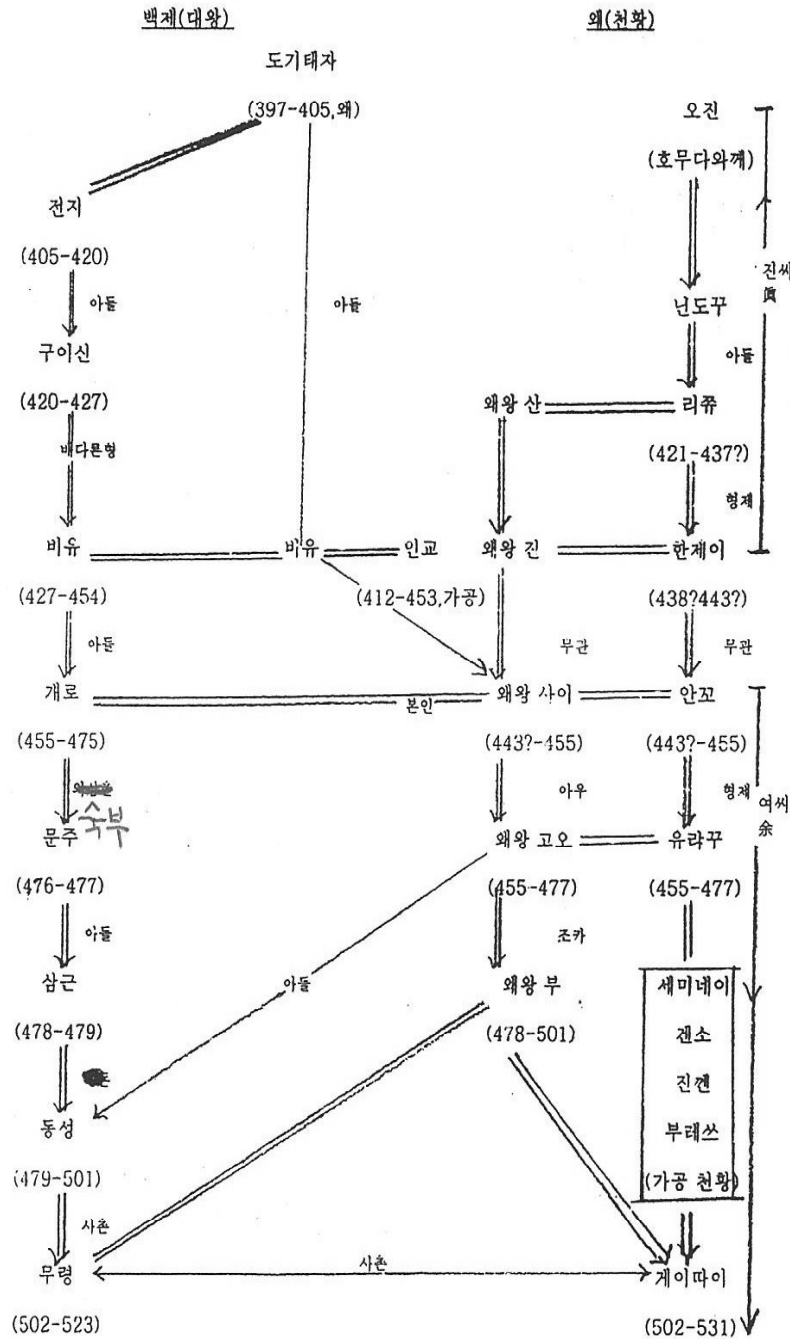
王餘毗後脩黃職以映爵號授之二十七年毗
 上書獻方物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表求
 易林式占腰弩太祖並與之毗死子慶代立世
 祖大明元年遣使求除授詔許二年慶遣使上
 表曰臣國累葉偏受殊恩文武良輔世蒙朝爵
 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忠勤宣在
 顯達伏願垂慈並聽賜除仍以行冠軍將軍右
 賢王餘紀為冠軍將軍以行征虜將軍左賢王
 餘昆行征虜將軍餘暉並為征虜將軍以行輔
 國將軍餘都餘入並為輔國將軍以行龍驤將
 軍沐矜餘爵並為龍驤將軍以行寧朔將軍餘
 流栗貴並為寧朔將軍以行建武將軍于西餘
 婁並為建武將軍太宗泰始七年又遣使貢獻

개로대왕의 상표문 (서기 458년)

自昔祖願躬振甲冑
 涉山川不遠軍及東征毛人五十五國西服東夷六十
 六國獲于海北九十五國王道壯盛耶土聖俊黑葉司
 宗不設于茲臣雖下愚恭膺先緒聖事所託雖秦天
 道遠百濟發治恭謹而旬聖無道國欲見其莽抄延
 皮到不已每致稽遲以失良風聖曰遠近咸通或
 亡有濟東之寇雖遠燕天路控百萬義堅臥張方欲
 大舉聖教父兄使聖成之功不獲一勞是在臣國不
 兵甲是以無息未捷至今欲練甲治兵申父兄之志
 士虎賁文武効功白刃又前亦所不顧若以帝德聖
 聖止聖教克時方盛無言前功願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或假授以助忠節臣等武使持節都督後新羅任
 加羅新羅等六國諸軍平安東大將軍使王

왜왕 부의 상표문(서기 478년)

우리가 본 왕통



발 제 2.

백제인의 발길이 닿았던 곳

이 도 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百濟人の 발길이 미쳤던 곳

李道學

(韓國傳統文化大學校 文化遺蹟學科 教授)

- | | |
|-----------------|--------------------------------|
| 1. 머리말 | 3. 東南아시아 諸國과의 교류 기사 |
| 2. 중국대륙과의 관련 기사 | 1) 백제의 黑齒 진출 |
| 1) 遼西經略說의 실제 | 2) 백제의 扶南國 및 印度, 그리고 崑崙과의 交流記事 |
| 2) 北魏와의 전쟁 배경 | 3) 物證이 말하는 백제와 東南아시아와의 교류 |
| 3) 南中國 기점 확보 문제 | 4. 航路와 造船術 |
| | 5. 맺음말 |

1. 머리말

백제를 ‘해양강국’이나 ‘교류왕국’으로 云謂하고 있다. 해양강국은 海上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배권의 비중이 주변 국가들 보다 지대해야만 할 뿐 아니라 海上으로부터 얻은 有·無形의 收益이 財政과 군사력의 일정 부분에 충당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한 前提로서 관련 사료에 대한 분석과 검증은 시도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민족주의 사학자인 丹齋 申采浩는 일찍이 “朝鮮 歷代 이래로 바다를 건너 領土를 둔 자는, 오직 백제의 近仇首王과 東城大王的 兩代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는 나아가 백제의 ‘海外植民地’를 云謂하기까지 했다. 孫晋泰의 경우도 백제가 빼어난 항해술을 기반으로 중국 대륙 및 일본열도와 활발히 交易한 것으로 摘示한 바 있다. 삼국 가운데 백제의 海運業이 가장 盛行했음을 알려준다. 백제는 기본 생산력의 근원이 農業이었다. 그럼에도 백제는 주변의 고구려나 신라 그리고 중국이나 倭 보다 항해 구간이 廣闊하였고, 해상활동도 훨씬 활발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백제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에만 국한시켜 간주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선왕조의 경우는 중국대륙이나 일본열도는 말할 것도 없고, 暹羅(태국)나 琉球國(오키나와) 및 자바(인도네시아)와의 교류도 활발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조선왕조를 ‘교류왕국’으로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海禁政策을 실시했던 조선왕조를 교류왕국이나 해상강국으로 일컫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말하듯이 백제인들의 활동 공간은 과연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더구나 백제의 요서경략이나 북위와의 전쟁 기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의 중국대륙과의 교류는 기실 조공을 비롯한 외교 의례상의 명분적인 常例에 국한되어진다. 따라서 이 정도의 교류를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백제의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류도 비판적인 견해가 없지 않다.

이렇듯 백제의 해외 활동과 관련한 상반된 인식과 평가가 엄존하였다. 그렇지만 백제가 넓은 세계를 운영했음은 술한 기록과 물증을 통해 확인된다. 가령 最近 江蘇省 連雲港 周邊에서 確認된 無慮 789基에 달하는 石室墳의 성격은 백제의 남중국 진출과 무관해 보이지 않

는다. 그러한 백제는 일본열도를 넘어 동남 아시아 지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예컨대 6세기대에 접어들어 백제 僧侶 謙益은 中印度 즉 中天竺까지 항해하여 梵本の 佛經을 가져왔다. 이러한 大航海는 단순한 求道の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백제로부터 인도와 인도차이나 半島에 이르는 거대한 바닷길이 열려 있고, 造船術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¹²⁾ 백제는 中印度를 비롯하여 扶南國과 崑崙 등 이 지역의 諸國들과 활발히 교섭을 가졌다. 이때 백제가 이용했던 통로는 海上 실크로드로 지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백제의 해외 활동에 관한 기록을 물증과 연관지어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했다. 그럼으로써 해양강국이나 교류왕국 개념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백제의 해외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구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는 필자가 최근까지 발표했던 관련 논문을 집대성했음을 밝힌다. 결국 이 작업을 통해 ‘교류왕국, 대백제’의 구체적인 실체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백제인들의 활동 기록이 넘치는 일본열도와의 관계는 배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도 일정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필자의 저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2. 중국대륙과의 관련 기사

1) 遼西經略說의 실체

백제와 후연간 교류의 산물인 人的 존재가 확인된다. 가령 백제 조정에는 將軍號를 지닌 王茂와 張塞 그리고 陳明과 같은 중국계 인물들이 존재한다.¹³⁾ 이와 더불어 西河太守에 임명된 馮野夫는 後燕 계통이 분명하다. 이 점 눈여겨 주시했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요서경략 기사를 음미해 본다. 즉 「양직공도」에서 진나라 말기에 駒麗 즉,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낙랑 또한 요서 진평현을 점유했다는 기사이다. 이 기록의 연원과 관련해 『송서』와 『양서』 백제 조의 관련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백제국은 본래 高驪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여 리에 있었는데, 그 후 고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였다. 백제가 다스리는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했다(百濟國 本與高驪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驪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宋書』).

b. 백제는 옛날의 來夷로 마한의 무리이다. 晉末에 고구려가 요동의 낙랑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의 晉平縣을 (경략함) 있었다(百濟舊來夷 馬韓之屬 晉末駒麗略有遼東 樂浪亦有遼西晉平縣(『梁職貢圖』).

c. 그 나라는 본래 句驪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晉世에 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와 진평 2군에 거처하였다. 스스로 백제군을 두었다(其國本與句驪在遼東之東 晉世句驪既略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梁書』).

고구려의 遼東經略 기사에 이어 백제의 진평군 설치 기사가 보인다. 백제의 요서경략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직공도」에서 ‘晉末’, 『양서』에서 ‘晉世’, 『송서』에서도 백제가 설치한 郡名을 晉平郡이라고 하여, 모두 ‘晉’의 존재가 거론되었다. 백제의 요서경략 기사는 488년에 편찬된 晉의 後身인 劉宋의 역사를 담은 『송서』에 제일 먼저 적혀 있다. 여기서 西晉과 東晉은 후대의 구분일 뿐 당시는 모두 ‘晉’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므로 晉末은

12) 李道學, 『백제 사비성시대 연구』 일지사, 2010, 291쪽.

13) 李道學, 「漢城末·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集, 1985, 9쪽.

東晉末로 지목하는 게 자연스럽다. 더구나 고구려가 요동을 완점한 시점과 결부 지어 본다면, 백제의 요서경략은 동진이 멸망하는 420년을 下限으로 한다. 대략 東晉末인 400년~420년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 北魏와의 전쟁 배경

백제가 북위와 전쟁한 기사는 화북 진출이나 요서경략과 관련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사료 중심으로 다음의 기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d. 위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어 와서 정벌하였으나 우리에게 패했다.¹⁴⁾
- e. 위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게 패하였다.¹⁵⁾
- f. 이 해에 魏虜가 또 騎兵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境界에 들어 가니 牟大가 장군 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虜軍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建武 2년(495년 ; 동성왕 17)에 모태가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지난 庚午年(490년)에 獫狁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히 쳐들어 왔습니다. 臣이 沙法名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역습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何梨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배니 시체가 들을 붙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리한 기세가 꺾이어 고래처럼 사납던 것이 그 흉포함을 감추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 사범명 등의 꾀이오니 그 공훈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범명을 임시로 征虜將軍 邁羅王으로, 贊首流를 임시로 安國將軍 辟中王으로, 解禮昆을 임시로 武威將軍 弗中侯로 삼고, 木干那는 과거에 軍功이 있는 데다가 또 臺와 舫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임시로 廣威將軍 面中侯로 삼았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天恩을 베푸시어 특별히 관작을 제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¹⁶⁾

위와 같은 사료 등에 근거해서 단재 신채호는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근구수가 기원 375년에 즉위하여 재위 10년 동안에 고구려에 대하여는 겨우 1차 평양의 침입만 있었으나, 바다를 건너 支那 대륙을 경략하여, 선비 모용씨의 燕과 苻氏의 秦을 정벌, 今 遼西·山東·江蘇·浙江 등지를 경략하여 광대한 토지를 장만하였다. 이런 말이 비록 백제본기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양서』와 『송서』에 ‘백제가 요서와 진평군을 공략하여 차지하였다’고 했고…근구수가 또 진과 싸우니, 今 山東 등지를 자주 정벌하여 이를 奔疲케 하였으며, 남으로 今 강소·절강 등지를 가진 晉을 쳐서 또한 다소의 州郡을 빼앗으므로, 諸書의 기록이 대략 이 같음이니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술의 實證 與否를 떠나 백제가 중국 대륙 일각에 거점을 확보하면서 北魏 정권과 자웅을 겨뤘다는 기록은 의미심장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백제가 해상 진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남제서』에 수록된 동성왕대 北魏와의 전쟁 기사를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단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학자 岡田英弘이 처음 제기하였다. 즉 그는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에 등장하는 ‘獫狁’과 ‘何梨’를 고구려로 간주하면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전쟁으로 언급했다.¹⁷⁾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何梨’를 ‘句梨’의 誤寫로 간주하여 고구려로 지목한다. 그렇지만 何梨와 동일한 대상인 ‘獫狁’이나 ‘魏虜’는 北魏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岡田英弘과 後學들의 생각처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위를 구성하는 지배 종족

14) 『三國史記』 권 26, 동성왕 10년 조.

15) 『資治通鑑』 권 136, 永明 6년 조

16) 『南齊書』 권 58, 동이전 백제 조.

17) 岡田英弘, 『倭國』 中公新書, 1977, 143쪽.

인 鮮卑와 연관 짓는 종족이 흉노였다. 실제 ‘협윤’과 ‘흉리’는 흉노를 가리키고 있다. 가령 『魏書』冒頭에서 獫狁을 山戎과 더불어 “匈奴之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제서』 백제조의 해당 구절 註釋에 따르면 “匈奴는 匈奴單于와 같은 말이다”¹⁸⁾고 했다. 게다가 ‘魏虜’라고 하여 분명히 백제와의 전쟁 대상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것이 ‘고구려’로 둔갑할 수 있는지 자못 의아하다. 고구려를 ‘魏에 종속된 오랑캐’라는 의미로 魏虜로 지칭했다는 혹자의 해석은 너무나 자의적이다. 『남제서』는 “魏虜匈奴種也”¹⁹⁾라고 하였듯이 魏虜를 匈奴와 일치시켜 인식했었다.

당시 남조에서 ‘虜’라고 표기한 대상은 북위였다. 이 것 역시 ‘魏虜’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상기한 인용에서도 위나라 군대를 ‘虜軍’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백제가 고구려를 ‘魏虜’라고 지칭한 국서를 남조에 보냈다고 하자, 이 때 남조에서는 ‘魏虜’를 고구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더구나 『南齊書』에 魏虜傳까지 있다.²⁰⁾ 동성왕 국서에는 일관되게 북위를 가리키는 ‘협윤’·‘흉리’·‘위로’라는 단어를 구사하였다. 실제 e의 『자치통감』이나 d의 『삼국사기』에도 백제와 북위와의 전쟁 기사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남제서』에 보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북위를 가리키는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백제가 북위와 격돌할 가능성이 어려운 관계로 고구려로 바뀌서 해석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백제의 해상 능력에 대한 無知에서 초래된 偏見으로 보인다.

3) 南中國 거점 확보 문제

百濟는 중국 最南端의 廣西壯族自治區나 福州 등지에 교역망을 확보하고 있었다. 廣西壯族自治區 南寧市 邕寧區 百濟鄉에 속한 ‘百濟墟’의 존재가 그것이다.²¹⁾ 그 밖에도 백제가 中國大陸과 긴밀히 연계된 기록이 보인다. 가령 崔致遠의 「上太師侍中狀」에서 “高句麗와 百濟의 全盛 時節에는 強兵이 百萬이나 되어 南쪽으로는 吳越을 侵犯하였고, 北으로는 幽·燕·齊·魯 地域을 흔들어서 中國의 큰 좀[蠹]이 되었다”라고 했다. 여기서 吳越은 『舊唐書』에서 百濟의 西界를 “西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越州에 이르렀다”고 하여, 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부근이라고 한 기록과 연결되어진다. 물론 『舊唐書』에서 바다를 건너 백제가 고구려·倭와 각각 境界를 이루고 있는 문구를 거론하며 지배 영역과는 무관한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백제 國界를 高句麗·倭라는 國號가 아니라 中國 內의 越州라는 특정 地名을 거론하였다. 따라서 越州는 백제의 영향력이 미친 空間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江蘇省 連雲港 周邊에서 확인된 무려 789기에 달하는 石室墳의²²⁾ 성격이 주목된다.²³⁾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連雲港 地區의 石室墳은 古代 韓國人의 墳墓일 가능성이 韓·中 兩國에서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즉 新羅人의 墳墓²⁴⁾ 내지는 백제 멸망 직후 唐으로 押送된 百濟人들의 墳墓라는 견해이다.²⁵⁾ 그런데, 이곳에 百濟 遺民들이 거주했다는 기록은 없다. 連雲港을 백제 유민들이 이주당한 공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故國인 백제로의 海外脫出이 용이한 海邊 지역에 徙民시킬 이유가 없다. 더구나 緣故地와 격절시킨다는 徙民의 通常 원칙과도 맞지 않다. 실제 連雲港 地區는 ‘百濟 遺民들의 痕迹이 확인된 지역’²⁶⁾과도 관련이 없다. 오히려 백제인들이 진출하기에 용이한 港口都市 連雲港에 백제 석실분이

18) 中華書局, 『南齊書』 3, 1983, 1020쪽.

19) 『南齊書』 권 57, 魏虜傳.

20) 『南齊書』 권 57, 魏虜傳.

21) 李道學, 「中國 廣西壯族自治區의 百濟墟 探索」 『위례문화』 13, 하남문화원, 2010. 27~32쪽.

22) 張學鋒, 「江蘇連雲港‘土墩石室’遺存性質芻議」 『東南文化』 2011-4, 108쪽.

23) 連雲港 주변 石室墳들은 白龍山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필자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현지 민속학회 부회장인 최초 발견자의 안내를 받아 2014년 1월 10일에 현장을 폭넓게 확인했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해서는 李道學 外, 『옥조고도 남경』 주류성, 2014, 451~46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張學鋒, 「江蘇連雲港‘土墩石室’遺存性質芻議」 『東南文化』 2011-4, 112~116쪽.

25) 박순발, 「렌원강(連雲港) 봉토석실묘의 역사 성격」 『百濟의 中國 使行路』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2, 112~113쪽.

26) 양중국, 「의자왕 후손 찾기」 『대백제,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9, 173쪽.

소재하였다. 더구나 連雲港의 石室墳은 泗泚城 都邑期 백제 墓制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連雲港의 석실분은 백제 멸망 이후가 아니라 백제 당시, 백제인의 분묘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라인의 활동은 주로 江蘇省 揚州부터 山東省 威海에서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은데, 신라인의 분묘라면 連雲港의 中雲臺山에서만 封土石室墳이 발견되고 山東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단히 銳利하면서도 적절한 지적인 것이다. 그 행간에는 이들 石室墳들이 백제 분묘일 가능성을 간파했음을 암시해준다.

3. 東南아시아 諸國과의 교류 기사

1) 백제의 黑齒 진출

백제는 제주도 뿐 아니라 北九州와 지금의 오키나와를 중간 기항지로 삼고 대만해협을 지나 필리핀 군도까지 항로를 연장시켰다. 필리핀 군도는 黑齒國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중국 낙양의 북망산에서 출토된 흑치상지 묘지석에 의하면 그 가문은 부여씨 왕족에서 나왔지만 선조들이 ‘흑치’에 分封된 관계로 그 지명을 따서 氏를 삼았다고 한다. 왕족을 지방의 거점에 파견하여 통치하는 담로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²⁷⁾ 즉 「黑齒常之墓誌銘」에서 흑치상지 가문의 내력을 적고 있는 다음의 敘述 體裁와 결부지어 살펴 보자.

g. 府君의 이름은 常之이고 字는 恒元인데 百濟人이다. 그 先祖는 扶餘氏에서 나와 黑齒에 封해진 까닭에 子孫이 인하여 氏를 삼았다(府君諱常之 字恒元 百濟人也 其先出自扶餘氏 封於黑齒 子孫因以爲氏焉).

h. 그 집안은 대대로 서로 이어서 達率이 되었다. 達率의 직책은 지금의 兵部尙書와 같다. 本國에서 二品官이다. 曾祖 이름은 文大이고, 祖의 이름은 德顯이며, 父의 이름은 沙次인데, 모두 官位가 達率에 이르렀다(其家世相承爲達率 達率之職 猶今兵部尙書 於本國二品官也 曾祖諱文大 祖諱德顯 考諱沙次 並官至達率).

i. 府君은 어려서부터 사나이답고 화통했으며…弱官이 되지 않아 地籍으로서 達率을 제수받았다. 唐顯慶 중에 邢國公 蘇定方을 보내어 그 나라를 평정하자 그 主人 扶餘隆과 더불어 함께 入朝했다. 붙여져 萬年縣人이 되었다(府君少而雄爽…未弱官 以地籍授達率 唐顯慶中 遣邢國公蘇定方 平其國 與其主扶餘隆 俱入朝 隸爲萬年縣人也).

위의 인용은 흑치상지가 唐에 소위 入朝하기 전까지의 官歷이다. 당연히 가문의 내력을 필두로 백제에서의 官歷을 담고 있다. 그런데 h에 보면 흑치상지 선조들이 역임했던 달솔 관등을 설명하면서 唐에서의 官格을 언급하였다. 묘지명은 분명히 唐人 讀者를 염두에 두고 백제의 달솔이 지닌 관격을 설명한 것이다. i는 흑치상지가 당에 귀부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부여씨의 존재를 ‘其主’라고 하여 흑치상지의 주군임을 밝혔다. 이 역시 唐人 讀者를 염두에 두고 흑치상지의 入朝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g의 흑치상지 가문의 내력 곧 氏의 기원이 되는 ‘흑치’에 대한 위치를 검토해 본다. 묘지명의 黑齒가 지명을 가리키는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묘지명은 ‘黑齒’라는 지명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묘지명의 독자들을 궁금하게 하는 사안일 수 있다. 그럼에도 흑치의 소재지에

27) 黑齒=禮山說의 문제점은 李道學, 「백제와 동남아 세계의 만남에 대한 逆比判」 『대백제/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동아시아국제학술포럼, 2009, 406~412쪽에서 詳論하였다.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唐人들이 ‘흑치’를 익히 알고 있거나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포착된 지역임을 뜻한다. 그러니 애써 ‘흑치’에 대해 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흑치상지묘지명」이 작성된 唐代를 기준해서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흑치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 墓誌銘의 작성자는 중국인이었다. 黑齒常之 역시 중국의 唐에서 武將으로 활약하다가 사망했다. 그런 만큼 중국적인 세계관 속에서 黑齒의 위치를 찾는 게 지극히 온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唐의 房玄齡(578~648)이 註釋한 『管子』에 따르면 黑齒를 “모두 南夷의 國號이다”고 했다. 그렇듯이 唐代人들은 흑치가 東南아시아 지역이라는 공간적 인식을 지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삼국지』 倭人 條의 “또 侏儒國이 그 (여왕국) 남쪽에 있는데, 사람들의 키는 3~4尺이며, 여왕(국; 邪馬臺國)으로부터 4천여 리 떨어져 있다. 또 裸國·黑齒國이 다시금 그 (주유국) 동남쪽에 있는데 船行으로 1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신당서』 南蠻傳에도 “群小 蠻夷의 종류는 많아서 기록할 수 없는데, 黑齒·金齒·銀齒 세 종류가 있다. 사람을 만날 때는 漆 및 鏤金·銀飾으로써 치아를 장식하였지만 취침시나 식사 때는 이것을 떼어 내었다”고 하여 보인다. 후자의 ‘黑齒’는 풍속과 연관지어 등장하고 있다. 실제 鄭夢周의 詩에 의하면 南越의 풍속으로 黑齒 습속이 보인다. 어쨌든 ‘黑齒’가 남만전에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대략의 그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기사를 토대로 중국의 梁嘉彬은 일찍이 黑齒의 위치를 지금의 필리핀 群島로 비정했다. 즉, 앞서 소개한 『삼국지』 왜인조에 따르면 지금의 琉球인 侏儒國에서 동남쪽으로 나가면 太平洋이 된다. 그러므로 裸國과 흑치국은 반드시 琉球의 西南쪽으로 지목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삼국지』와 『양서』의 同條를 비교하면 裸國과 흑치국은 모두 주유국(琉球)의 남쪽에 소재하였다. 그리고 흑치국은 裸國의 東南에 소재한 것이다. 그런데 呂宋(필리핀)에 관한 중국과 일본 관련 기록을 놓고 볼 때 呂宋은 臺灣의 東南方に 소재하였다. 따라서 裸國은 臺灣이고, 그 東南에 소재한 흑치국은 명백하게 필리핀임을 입증했다.

여기서 백제 왕실이 흑치상지의 祖先을 黑齒에 封했다고 한다. 이러한 分封은 領域的 개념이 수반된 것이므로 백제의 海外 거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백제 왕족인 黑齒常之의 祖先들이 黑齒에 分封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본다. 黑齒의 위치는 명백히 지금의 필리핀 群島임을 술한 문헌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확인된 蒙古斑點의 존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럼에도 黑齒의 소재지를 필리핀으로 지목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즉 黑齒의 소재지를 禮山으로 지목한 견해가 있지만 고증상의 문제점은 너무도 많았다.²⁸⁾ 흑치=예산설의 핵심 근거는 지금의 예산군 예산읍을 백제 때 烏山이라고 한 사실에 두고 있다. 즉 烏山은 ‘검은山’이므로 黑齒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완해서 검증해 본다. 백제 때 烏山은 통일신라 경덕왕대를 전후해서 孤山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고려 초에는 현재의 禮山 지명이 생겨났다. 여기서 경덕왕대를 전후해서 행정지명을 바꿀 때는 중전에 사용한 지명의音を 漢譯하는 형식이 많다. 그러니 ‘烏山’을 ‘외山’으로 읽었기에 ‘외로울’ ‘孤’字를 넣어서 孤山으로 지명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흑자의 주장처럼 결코 烏山을 ‘검은 山’과 관련 짓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烏山을 ‘검은 山’과 관련지었다면 ‘黑山’으로 고쳤어야 마땅하다.²⁹⁾ 실제 경상북도 안동의 군자 마을에 소재한 烏川을 ‘검은 내’가 아니라 ‘외내’로 읽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烏山은 ‘외山’으로 읽었기에 孤山으로 바뀐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따라서 烏山=黑山이라는 心證에 근거한

28) 이에 대해서는 李道學, 앞의 책, 2010, 274~275쪽에서 詳論하였다.

29) 李道學, 위의 책, 274쪽.

막연한 黑齒=禮山說은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랬기에 앞으로는 이 件을 재론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필자는 최근에 필리핀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삼국시대 토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푸켓박물관 타와치이 학예관이 “비록 작은 수이지만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식 도자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라는 증언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라도 백제의 필리핀 진출을 확신하게 될 것 같다.

2) 백제의 扶南國 및 印度, 그리고 崑崙과의 交流 記事

백제는 다시금 항로를 확장시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이르렀다. 다음의 기사에서 보듯이 백제는 동남 아시아 지역과 교류하였다.

j. 가을 9월에 백제 聖明王이 前部 奈率 眞牟貴文과 護德 己州己婁와 더불어 物部 施德 麻奇牟 등을 보내어 와서 扶南 財物과 奴 2口를 바쳤다.³⁰⁾

k. 百濟·扶南·林邑國이 함께 사신을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³¹⁾

l. 또 奏上하기를 “臣은 별도로 軍士 萬人을 보내어 任那를 도울 겁니다. 아울러 들은 것을 아뢰기를 지금 일이 바야흐로 급하므로 배 한 척을 奏上합니다. 다만 좋은 비단 2필·毳毼 1領·도끼 300口 및 捕獲한 城民 남자 2명과 여자 5명을 바칩니다…”라고 했다.³²⁾

m. 丙午 4년(신라 법흥왕 13년, 고구려 안장왕 8년, 梁 보통 7년)에 백제 沙門 겸익이 중인도 상가 나대율사에 이르러 梵文을 배우고 律部를 공부하고 梵僧 倍達多三藏과 같이 범문 律文을 가지고 귀국하여 72권을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이것으로 백제 율종의 시작으로 삼는다.曇旭과 惠仁 두 법사가 律疏 36권을 저술하였다.

n. 비록불광사사적에 이르기를 백제 성왕 4년(526) 丙午에 沙門 謙益이 마음 속으로 맹세하여 律을 구하기 위해 航海로써 中印度 常伽那大律寺에 이르렀다. 梵語를 5년 동안 배워 깨우치는 한편 律部를 깊이 공부하여 戒體를 장엄하고 梵僧 倍達多三藏과 더불어 범문 阿曇藏과 五部律文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백제왕은 羽葆와 鼓吹로 교외에서 맞이하여 興輪寺에 안치하였다. 국내의 명승 28인을 불러들여 겸익법사와 더불어 율부 72권을 번역하게 하니 이가 곧 백제 율종의 鼻祖이다. 이에曇旭과 惠仁 두 법사가 律疏 36권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왕이 毗曇과 新律에 서문을 써서 台耀殿에 보관하였다. 장차 목판에 글자를 새겨 널리 펴려고 하였으나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다가 돌아 가셨다.³³⁾

o. …이 보다 앞서 同王 四年(西紀 五二六)에는 謙益이 印度에 가서 五部律의 梵本을 갖고 돌아와 二十八人의 名僧과 함께 律部 七十二卷을 翻譯하여 百濟 律宗의 鼻祖가 되었다. 또 이때 曇旭·惠仁 兩

30) 『日本書紀』권 19, 欽明 4년 조. “秋九月 百濟聖明王遣前部奈率眞牟貴文·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

31) 『梁書』권 2, 武帝中, 天監 11년 4월 조. “百濟·扶南·林邑國 并遣使獻方物”

32) 『日本書紀』권 19, 欽明 15년 12월 조. “又奏 臣別遣軍士萬人 助任那 并以奏聞 今事方急 單 船遣奏 但奉好錦二匹·毳毼一領·斧三百口 及所獲城民 男二女五名”

33)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篇, 1918, 聖王 31년 조 備考.

法師는 律疏 三十六卷을 著述하는 등 戒學이 크게 發達하였다.³⁴⁾

p.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중파는 戒律宗이었다. 백제의 謙益이나 신라의 慈藏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지만...³⁵⁾

q. 또 백제 使人이 崑崙 사신을 바다 속에 던져버렸다.³⁶⁾

3) 物證이 말하는 백제와 東南아시아와의 교류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서도 백제와 동남아시아 세계와의 접촉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³⁷⁾ 백제금동대향로에 보이는 코끼리의 존재는 백제인들이 불교를 통한 간접 접촉이 아니라 實見한 것일 수 있다. 이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코끼리 위에 붓짐을 지고 올라 탄 사내의 모습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코끼리를 이 처럼 탈 것, 즉 운송 수단으로 이용한 광경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가 보아야만 재현할 수 있는 모티브이다. 실제 백제금동대향로의 코끼리像은 아프리카產이 아니라 동남아시아產 코끼리로 밝혀졌다. 백제금동대향로의 코끼리는 상상의 작품이 아니라 實景 再現임이 밝혀졌다. 바로 이 점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日本 正倉院 北倉에는 의자왕이 倭 朝廷의 실권자인 藤原鎌足에게 선물한 바둑함과 바둑돌 그리고 바둑판이 전한다. 뚜껑에 코끼리 문양이 있는 銀製 바둑함 속에 담긴 白·黑·紅·紺色の 4 종류로 된 총 516개의 바둑돌 가운데 紅色과 紺色은 재료가 象牙이다. 扶蘇山寺址에서 출토된 塑造 코끼리상 양 옆면의 구멍에는 상아를 삽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⁸⁾ 게다가 익산 왕궁평성 탑에 부장되었던 금제 금강경판은 상아로 만든 각필로 새긴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백제에서는 상아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그러한 需要에 따라 東南아시아產 물품의 공급이 잇따랐을 것이다. 실제 원산지가 스리랑카인 紫檀木으로 제작된 바둑판의 17개 화점 숫자는 중국 바둑판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은 사실상 명백이 꿇긴 국산 순장 바둑판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의자왕이 보낸 바둑판은 백제 제작이 명백하다. 백제금동대향로에 보이는 붓짐을 지고 코끼리에 올라탄 사내의 모습은 백제와 東南아시아 諸國間 교류의 一端을 躍如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코끼리상은 아프리카產이 아니라 東南아시아產으로 밝혀졌다. 實景 코끼리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使人’이라는 공식 사절을 동남아시아 諸國의 일원인 崑崙과 접촉시킨 사실이 포착되었다.³⁹⁾ 이렇듯 백제는 필리핀 群島를 통과해 그 보다 훨씬 원거리에 소재한 인도 차이나半島 諸國들과 교류하였다. 백제가 東南아시아 諸國과 교류한 사실은 물증을 통해서도 밝혀진다.

34)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578~579쪽.

35)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91쪽.

36) 『日本書紀』 권 24, 皇極 원년 2월 조. “去年十一月 大佐平智積卒 百濟使人擲崑崙使於海裏”

37) 백제금동대향로의 기능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李道學, 「百濟의 祭儀와 百濟金銅大香爐」 『중정학과 중정문화』 17, 2013, 29~4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梁銀景, 「百濟 扶蘇山寺址 出土品の 再檢討와 寺刹의 性格」 『대백제/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동아시아국제학술포럼, 2009, 3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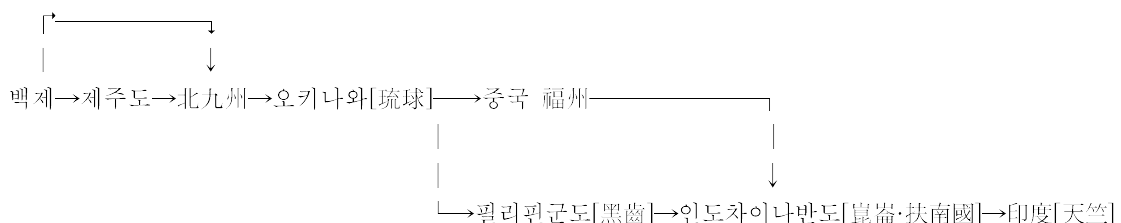
39) 『日本書紀』 권 24, 皇極 원년 2월 조.

4. 航路와 造船術

백제는 5세기 후반에는 쌍배인 舫이라는 선박을 운용하여 중국 대륙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왜에서 2척의 선박을 건조하였는데, 이것을 일러 ‘百濟船’라고 하였을 정도로,⁴⁰⁾ 백제 선박은 크고 성능 좋은 선박의 대명사가 되었다. 백제에서 중국 대륙에 이르는 항로는 서해 연안을 끼고서 항진하는 연안 항로와, 山東半島의 登州까지 도달하는 최단 거리인 斜斷航路, 흑산도 방면·을 지나 남중국의 寧波로 가는 항로 등이 있었다.⁴¹⁾ 또 대표적인 항구로서 인천·화성·부안·영암 등을 꼽을 수 있다.

백제에서 인도에 이르는 항로와 조선술은 뒷받침되었을까? 백제가 중국 선박을 이용하여 中天竺과 왕래했으리라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백제는 중국에서 진귀한 물산을 수입한 후 왜에 선물했으리라는 막연히 선입견에 기댄 주장도 나온다. 백제의 동남아시아 물산 확보의 매개자로서 중국의 존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백제 교류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이미 부남국이나 곤륜과 직접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와 동남아시아 諸國 사이에 ‘中國’을 설정한 견해는 타당성 없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백제의 동남아시아 諸國에 이르는 항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을까? 금강에서부터 西海沿岸을 돌아 제주도 내지는 北九州→오키나와[琉球]를 중간 기항지로 하면서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중국 남부 연안의 福州나 필리핀 群島에서 인도차이나반도를 통과하여 印度에 이르는 거대한 海上실크로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航路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혹은 남인도→동남 아시아→중국 산둥성으로 이어지는 남방 해로 가운데 ‘靑州 루트’는 한반도까지 연결된다고 한다. 바로 이 루트를 이용해서 백제가 동남 아시아와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도 모색될 수 있다. 백제는 금강에서 남중국 연안→福州→대만해협→필리핀群島→인도차이나반도→印度로 이어지는 大航路가 되겠다. 이와 더불어 7세기대 신라 불상을 놓고 볼 때 해로를 통해 인도 불상 양식이 직접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대에 인도 阿育王이 배에 실어 보낸 황금에 의해 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도 해로를 통한 兩者間の 교류가 생각 보다 활발했음을 알려준다.

40) 李道學,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62쪽, 577쪽.

41) 윤명철, 『해양사연구 방법론』 학연문화사, 2012, 181~237쪽.

5. 맺음말

백제는 굴곡이 많은 리아시스식 해안이 발달한 지형적 특질을 한껏 활용해서 드 넓은 세계를 호흡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술과 항해술이 자연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백제의 해외 활동에 관한 문헌 기록 가운데 진부하다시피한 일본열도와와의 관계는 제외하였다. 반면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대륙이나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에워싼 기사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백제의 요서경략 기사는 그간 진출 동기가 석연찮았던 관계로 기록의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얻지 못하였다.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것처럼 적혀 있지만 구태여 그 먼 곳까지 바다를 건너와 고구려와 대결을 벌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晉末’이 東晉末인 420년을 하한으로 한다는 점에서 後燕과 백제와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후연은 고구려가 400년에 낙동강유역으로 진출한 틈을 타고 기습적으로 그 후방의 700여 리의 땅을 약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곧 고구려의 반격으로 인해 대릉하 일대까지 빼앗기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백제에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백제군이 요서 지역에 진출하였지만 곧 北燕 정권이 등장하여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열었다. 이때 상황이 애매해진 遼西 駐屯 백제군은 주둔지를 實效支配하였는데, 곧 진평군의 설치인 것이다. 진평군의 존속은 488년~490년에 발생한 백제와 북위와의 군사적 격돌과 무관하지 않다는 심증을 안겨주었다.

『신당서』에서 백제의 서쪽 경계를 지금의 절강성 소흥시를 가리키는 越州로 지목한 것은 남중국 세계에도 일정한 연관성을 맺었음을 뜻한다. 백제가 甌越을 공략하였다는 기록과 무관하지 않은 앎을뿐더러 이러한 기사를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江蘇省 連雲港 周邊에서 확인된 무려 789基에 달하는 石室墳의 소재지는 백제인들이 居住했던 ‘長淮’ 가운데 淮水와 연결되고 있다. 連雲港 石室墳의 조성 주체를 백제와 연관 짓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古墳群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곳이 백제인들의 대단위 常住 據點이었음을 암시해준다. 나아가 史書에 적힌 백제의 중국 진출 기록이 결코 虛辭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는 不動의 물증이 된다.

백제가 동남아시아 諸國과 교류하였음은 고고학적 물증으로서도 방증할 수 있었다. 그러던 터에 문헌 기록의 경우는 크나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謙益의 증인도 來往이 사실이라면 黑齒의 소재지를 필리핀으로 지목하는 견해가 허황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黑齒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禮山으로 비정한 견해의 허구성을 날날이 밝혔기 때문에 黑齒=禮山說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 백제와 扶南國인 캄보디아와의 교류도 중국 경유설의 허구성을 밝혔다. 부남국은 539년에 중국의 梁과의 교류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백제는 543년에 扶南의 財物과 奴를 倭로 보내었다. 이로 보더라도 백제가 梁을 경유해서 부남의 재물을 간접적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끝으로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확인된 면직물의 유입로에 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면직물의 기원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지목하였지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였다. 백제는 綿種을 일본열도에 전래해 준 崑崙이나 목면의 원산지인 印度와 교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백제 면직물의 기원은 동남아시아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백제의 해양 활동에 관한 기록을 검증함으로써 전통시대의 한국 역사상 백제야

말로 가장 광활한 영역을 누비고 다녔던 국가로 밝혀졌다. 백제 문화의 국제성과 광대한 세계관이 갖추어진 공간적 범위가 확인된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MEMO

